

アスペクト形式の表す  
意味について

金 沅 基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田 惠 敬

## 論文概要

現代日本語와 現代韓國語의 아스펙트(Aspect)를 나타내는 형식의 意味·用法은 대체로 類似하다고 할 수 있지만 部分的으로 差異도 있다. 이러한 差異點에 대해서는 先學에 의해 많은 研究가 되어 왔다. 그러나 先行研究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先行研究의 成果가 반드시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선 첫 번째로는 「Perfect(經驗·記錄)」을 나타내는 「하고 있다(해 있다)」形式에 대해 充分한 研究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現代韓國語의 경우는 「한다」形式과 「하고 있다」形式이 모두 繼續性을 나타낸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두 形式의 의미차이에 대한 研究는 없었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現代日本語와 韓國語의 아스펙트 形式이 나타내는 意味 중 「Perfect(經驗·記錄)」을 나타내는 形式과 時間關係를 나타내는 從屬節에 나타나는 형식에 대해 實例를 바탕으로 하여 比較, 檢討하였다.

첫째로는 先行研究에서는 現代日本語의 「シテイル(現代韓國語의 ‘하고 있다’에 相当)」形式이 나타내는 派生的 意味 중의 하나인 「Perfect(經驗·記錄)」用法에 對應하는 現代韓國語의 表現은 「했다(現代日本語의 ‘シタ’에 相当)」形式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는 「Perfect(經驗·記錄)」를 나타내는데 「하고 있다(해 있다)」形式이 사용되는 實例가 있음을 指摘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고 있다(해 있다)」形式을 「했다」形式으로 置換한지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했다」形式으로 置換이 안 되고 「하고 있다(해 있다)」形式으로만 表現 가능한 例文을 發見할 수 있었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現代韓國語에 있어서 「Perfect(經驗·記錄)」을 표현하는 形式

으로 「했다」形式만이 아니라 「하고 있다(해 있다)」形式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는 現代韓國語의 경우, 「한다」形式과 「하고 있다」形式이 모두 繼續性을 나타낸다. 그러나 두 形式의 의미차이에 대한 指摘은 없었다. 따라서 본 論文은 現代日本語의 時間關係를 나타내는 從屬節인 「うち(に)」節과 이에 対応하는 現代韓國語의 「사이(에)」節을 对照함으로써 「한다」形式과 「하고 있다」形式이 갖는 의미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うち(に)」節과 「사이(에)」節은 共起關係·期間限定을 나타내기 때문에 「動作繼續」을 나타내기 쉽다. 이처럼 「うち(に)」節과 「사이(에)」節은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두 형식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해 「うち(に)」節과 「사이(에)」節을 대조해본 결과, 現代日本語의 경우는 「シテイル+うち(に)」形式이 「スル+うち(に)」形式보다 相對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반해 現代韓國語의 경우는 「하는+사이(에)」形式이 「하고 있는+사이(에)」形式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結論적으로 「하는 사이(에)」형식은 움직임이 나타내는 動詞와 함께 사용되며, 「하고 있는 사이(에)」형식에는 움직임이 없는 動作(静止動作)을 나타내는 動詞 혹은 움직임의 모습(樣態)을 나타내는 動詞가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하는 사이(에)」形式이 「하고 있는 사이(에)」形式보다 典型的인 「繼續性」을 나타내는 形式이라고 할 수 있다.

現代韓國語의 경우는 「한다」形式과 「하고 있다」形式이 모두 「繼續性」을 나타내지만, 「하는 사이(에)」形式과 「하고 있는 사이(에)」形式하에서 두 形式이 나타내는 意味에는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 目 次

## 論文概要

### I. 序論

1. 研究の目的と必要性 ..... 2
2. 研究方法と資料 ..... 7

### II. 本論

1. テンス・アスペクトに関する一般的な定義 ..... 13
  - 1.1. 日本語におけるテンス・アスペクト ..... 15
    - 1.1.1. テンスを表す形式 ..... 15
    - 1.1.2. 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 ..... 17
    - 1.1.3. 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相違点 ..... 18
  - 1.2. 韓国語におけるテンス・アスペクト ..... 20
    - 1.2.1. テンス・アスペクトに関する先行研究 ..... 20
    - 1.2.2. テンスを表す形式 ..... 23
    - 1.2.3. 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 ..... 26
2. アスペクト形式の表す意味・用法 ..... 29
  - 2.1. 日本語における「完成相」と「継続相」 ..... 29
  - 2.2. 韓国語における「完成相」と「継続相」 ..... 32
  - 2.3. 日本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完了)相」 ..... 33
    - 2.3.1. 「パーフェクト相」の定義 ..... 33
    - 2.3.2. 「パーフェクト」と「テンス」との相違 ..... 35
    - 2.3.3. 「パーフェクト」と「結果継続」との相違 ..... 36
  - 2.4. 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完了)相」 ..... 38
3. 日韓両言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 ..... 40
  - 3.1.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シテイル」と「シタ」 ..... 40

3.2.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했다」	42
3.3. 資料の分析	51
3.3.1. 現代韓国語における「하고 있다」形式の意味・用法	51
3.3.2. 現代韓国語における「해 있다」形式の意味・用法	55
3.3.3.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形式	57
3.3.4. 主張の根拠	58
4. 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うち(に)」節と「사이(에)」節	59
4.1. 現代日本語における「うち(に)」節	61
4.2. 現代韓国語における「사이(에)」節	64
4.3. 資料の分析	64
4.3.1. 「하는 사이(에)」形式	64
4.3.2. 「하고 있는 사이(에)」形式	68
4.3.3. 「하는 사이(에)」と「하고 있는 사이(에)」の違い	70
<b>Ⅲ. 結論</b>	<b>75</b>

参考文献

ABSTRACT

付録

# I . 序論

## 1. 研究の目的と必要性

現代日本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の研究は、戦後から現在に至るまで多くの先学により、膨大な論文が発表されている<sup>1)</sup>。その中で、日韓両言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の対照研究も盛んに行われている<sup>2)</sup>。

日韓両言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の意味・用法については、先行研究に基づいて<図1>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図1>に関しては本論でより詳しく述べる)。

<図1>

	完成相	継続相	パーフェクト相
日本語	スル	シテイル	シテイル・シタ
韓国語	한다	한다 / 하고 있다 해 있다	했다

<図1>から分かるように、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の意味・用法は概ね類似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sup>3)</sup>。しかし、両言語のアスペクト形式が表す意味には、部分的に以下のような相違点が見られる。

第一に、日本語の場合は、基本的な意味である「動作継続」を表す形式は「シテイル」であり、韓国語の場合は、「하고 있다」(日本語の「シテイ

1) 主な研究としては、金田一春彦(1950)、藤井正(1966)、吉川武時(1973)、奥田靖雄(1978)、工藤真由美(1982)、工藤真由美(1995)等があげられる。

2) 主な研究としては、油谷幸利(1978)、管野裕臣(1986)、徐正洙(1986)、伊藤英人(1989)、浜之上幸(1991)、浜之上幸(1992)、梁慶模(1993)、生越直樹(1995)、浜之上幸(1997)、井上優(1997)、安平鎬(2001)等があげられる。

3) 韓国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の意味・用法については、南基心(1972)、李南淳(1981)、徐正洙(1986)、李南淳(1990)、金声和(1992)を参考にしている。

ル」に相当する)形式が用いられる。しかし、韓国語の場合は、「하고 있다」形式のみならず日本語の「スル」形式に相当する「한다」形式も、同じく「動作継続」を表すことが出来る<sup>4)</sup>。

- (1) 今、雪が降っている<sup>5)</sup>。
- (2) 지금 눈이 온다. (=오고 있다)

第二に、日本語の場合は「シテイル」の派生的な意味として「単なる状態」「パーフェクト(経験・記録)」(以下では「パーフェクト」と呼ぶことにする)「くりかえし(反復)」の用法があげられる。このうち「単なる状態」を表す形式において、両言語の間に違いが見られる。

韓国語の場合は、「単純状態」を表すのに、日本語の「シテイル」形式に相当する「하고 있다」あるいは「해 있다」形式は用いられない。

- (3) 太郎はお父さんに似ている。
- (4) 철수는 아버지를 닮았다. (\*닮고 있다 / \*닮아 있다)

第三に、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反復相」を表す形式として、「スル(シタ)—한다(했다)」と「シテイル(シテイタ)—하고 있다(하고 있었다)」形式が用いられる。ただし、次の例文のように現在にまでくりかえされる「反復相」の場合には、日本語の「シタ(過去形)」形式は用いられない。

<太郎(철수)は現在もこの薬を飲んでいる>

---

4) 基本的な意味、派生的な意味については本論で後述する。

5) 本論文において例文は、主に(1)(2)(3)……などのような番号で示した。そのうち、KAIST、小説作品から引用した例文に対しては、それぞれ例文番号と出典を明記しており、例文(1)のように出典が明記されていないのは筆者の作例である。

- (5) 太郎は一年前からこの薬を(飲む/飲んでいる)。( \* 飲んだ)
- (6) 철수는 1년 전부터 이 약을 (먹는다/먹고 있다/먹었다).

第四に、日本語の場合は「パーフェクト現在」を「シテイル」と「シタ」形式で表すが、韓国語の場合は、基本的に「했다」形式で表す。日本語の「シテイル」形式に相当する「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は「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のに用いられない。

<現在、太郎(철수)は既婚者である>

- (7) 太郎は三年前に結婚している。
- (8) 철수는 삼년 전에 결혼했다.

(\*결혼하고 있다 / \*결혼해 있다)

以上の事実から、日韓両言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形式は、かなり類似しているながらも対照的な点もあることが分かる。

本論文では、以上で述べたような先行研究の成果を十分にふまえたうえで、日韓両言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形式の表す意味・用法についてより詳しく考察していきたいと思う。具体的には、①「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アスペクト形式と、②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の中での「動作継続」を表す形式に関して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まず、①に関しては、日本語の場合は「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として「シテイル」形式と「シタ」形式がともに用いられる。そして、韓国語の場合は、基本的に「했다」形式が用いられる(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については、本論の3章で詳しく述べる)。しかし、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 (9) <순조실록>에는 홍경래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그를  
표현하고 있다. (상도)<sup>6)</sup>

(<純祖實錄>では、洪景來について、一言で彼を表現して  
いる。)

例文のように、韓国語の場合においても「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している例文も少なくない。つまり、韓国語の「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アスペクト形式は、「했다」形式のみならず部分的に「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も用いられているのである。この事実については、先行研究で、すでに指摘されてきたことである<sup>7)</sup>。しかしながら「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は用いられるのに「했다」形式が用いられない場合に関しては先行研究ではまだ指摘されていない。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 (10) 이 무렵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임상옥의 시 한 구절  
이 그의 <가포집>에 남아 전하고 있다.(\*전했다)

(상도)

(この頃に作ったものと思われる林尚沃の詩の一句が、彼の  
<稼圃集>に残って、伝わっている。)

上の例文のように、「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基本形(基本的に「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とされている形式)である「했다」形式が用いられない場合もある。

本論文では、このように、「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基本的な形式である

---

6) 作品の出典については、序論の2章に詳しく示してある。また、韓国語の例文に対する日本語訳は筆者による。

7) 注2)を参考されたい。

「했다」形式が用いられない場合を指摘し、この現象について考察していきたいと思う。

次に、②に関しては、まず、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sup>8)</sup>。

- (ア) しかし歩いているうちに腕が悪くなってきて、道端に鼻面をすりつけるようにして胃の中の物を出しました。
- (イ) 私は話しているうちに、薄気味悪くなってしまった。
- (ウ) とにかく、それで倉庫を整理しているうちに、彼は一九一八年に義弟が置いていった箱をみつけて開いてみたの。

福嶋(2001)は、「うち(に)」節を構成する述語に現れる「シテイル」形式と「スル」形式の用例の数を分析している。その結果、総用例121例のうち、「シテイル」形式で現れるのは112例であり、「スル」形式で現れるのは9例であると報告している。

このように、現代日本語の「うち(に)」節に現れる「シテイル」形式と「スル」形式の分布の割合は、「シテイル」形式の方が圧倒的に多いことが分かる。

次に、「うち(に)」節に相当する韓国語の「사이(에)」節について見てみたいと思う<sup>9)</sup>。

- (11) 응원하러 오던 진생의 비명소리에 놀란 장호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한당의 칼이 번쩍하자, 장호의 머리

8) 例文は、福嶋(2001)から借りてあげておく。また、他の論文からの再引用の例文は、(ア)(イ)(ウ)……などのように示した。

9) 「うち(に)」を含む節と「사이(에)」を含む節を各々「うち(に)」節、「사이(에)」節と呼ぶことにする。

가 투구와 함께 두개로 갈라지고 말았다. (삼국지)  
(助けに来ている陳生の悲鳴を聞いて驚いた張虎が狼狽しているうちに、韓当の刀がピカッと光ると同時に、張虎の頭が兜と一緒に二つに分かれてしまった。)

- (12) 적들이 경계를 펴며 소화다리를 건너오는 사이에 교회당 뒷산까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태백)  
(敵が警戒しながら、〈昭和橋〉を渡ってくるうちに、教会堂の裏山までは安全に避難することが出来た。)

例文で分かるように、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である「사이(에)」節は、日本語と同様に「하고 있는+사이(에)」形式と「하는+사이(에)」形式の両方が用いられる。しかし、日本語とは反対に「하는+사이(에)」形式が「하고 있는+사이(에)」形式より相対的に多い。特に、動きを表す動詞の場合は、「하는+사이(에)」形式に多く現れる。結論的には、動詞の意味的な特徴によって「動作継続」を表す「한다」と「하고 있다」形式は違う機能を担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言えよう。この「うち(に)」節と「사이(에)」節に関しては本論の4章で詳しく述べることにする。

本論文は、上の2つの問題を実例に基づいてより明確に究明することを主な目的とする。

## 2. 研究方法と資料

本論文の研究対象としている2つのテーマ、つまり、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に関する考察と、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である「사이(에)」節に現れる形式に関する考察は、KAIST Concordance Programから得られた用例(<http://morph.kaist.ac.kr/kcp/>)と、〈図2〉に

示す小説作品の中からの実例を合わせて分析を行っている。ただし、時間関係を表す従属文「사이(에)」節に関する考察においては、「되다」形式の受動態は考察対象から外した。

< 図 2 >

作品 年度	作家	作品名	出典	略号
2002	간디 / 함석헌 옮김	간디자서전	한길사	간디
2003	김주영	객주	문이당	객주
1999	유시주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신화	푸른나무	거꾸로
1999	공지영	고등어	푸른숲	고등어
1997	김용옥	고려사	청솔출판사	고려사
1987	김성중	국제열차살인사건	추리문학사	국제
2005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지식하우스	그산
1999	신경숙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문학과지성사	기차
1999	아돌프 히틀러 / 서석연 옮김	나의 투쟁	범우사	나의
2001	전유성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소담출판사	남의
1999	잭 켈필드, 마크 빅터 한센 / 오현수 옮김	내 마음이 강해야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	청조사	내마음
1999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문학동네	내생
1995	이외수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동문선	내잠
1997	오숙희	너무 아까운 여자	폴빛	너무
1998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너무도
2000	플로렌스	도움이 되는 친구	해냄출판사	도움

	아이작스 / 장성자 옮김	해가 되는 친구		
2003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뜻
1997	크리스티앙 자크 / 김정란 옮김	람세스	문학동네	람세스
1997	정현웅	마루타	신원문화사	마루타
2001	마크 빅터 한센, 잭 캔필드 / 류시화 옮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레	마음
1994	한수산	먼 그날 같은 오늘	나남출판	먼그날
1998	한수산	모든 것에 이별을	삼진기획	모든
1999	법정스님	무소유	범우사	무소유
1998	전경린	바닷가 마지막 집	생각의나무	바닷가
1997	김원일	불의 제전	문학과지성사	불의
1990	김성중	불타는 여인	추리문학사	불타
2002	히가시노 게이고 / 이선희 옮김	비밀	창해	비밀
1997	빌게이츠 / 이규행 옮김	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삼성	빌게
1996	한수산	사랑의 이름으로	문학사상사	사랑
1998	김홍신	삼국지	대산출판사	삼국지
2000	최인호	상도	여백미디어	상도
1995	은희경	새의 선물	문학동네	새의
1997	정연아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	명진출판	성공
1994	이재운	소설 금강경	서해문집	금강
2002	정비석	소설 손자병법	은행나무	손자
1995	이재운	소설 토정비결	해냄출판사	토정

1998	은희경	아내의 상자	문학사상사	아내
2001	조정래	아리랑	해냄출판사	아리랑
1998	박정요	어른도 길을 잃는다	창작과비평사	어른
2003	김성중	여명의 눈동자	남도	여명
2001	잭 캔필드 / 류시화 옮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푸른숲	영혼
1997	박완서	예감	정민	예감
1997	신경숙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오래
2002	프레드릭 포사이드 / 이옥용 옮김	오페라의 유령	동방미디어	오페라
1999	신경숙	외판방	문학동네	외판방
2000	박성래	이야기과학사	경원각	이야기
2004	김홍신	인간시장	행림출판	인간
2002	김윤희	잃어버린 너	태동출판사	너
1995	홍명희	임격정	사계절출판사	임격정
1997	정채봉	입속에서 나온 동백꽃 세 송이	샘터사	입속
1998	이청준	자유 의 문	열림원	자유
2001	조영래	전태일 평전	돌베개	전태일
2000	괴테 / 박찬기 옮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민음사	젊은
1978	김성중	제5열	남도출판사	제5열
1995	전유성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가서원	조금
1991	박영철	주역이야기	명문당	주역
2001	류홍택	소설 진시황제	명선미디어	진시

	/ 오정윤 옮김			
2000	양귀자	천년의 사랑	살림출판사	천년
2003	김성중	최후의 증인	동서문화사	최후
2005	존그리샴 / 김희균 옮김	타임투킬	시공사	타임
2002	조정래	태백산맥	해냄출판사	태백
2002	박경리	토지	나남출판	토지
1997	류시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열림원	하늘
2002	조정래	한강	해냄출판사	한강
2000	은희경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창작과비평사	행복
1998	김주영	홍어	문이당	홍어
2002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친구미디어	화성
2002	이외수	흐린 세상 건너기	생각하는백성	흐린
1998	나카타니 아키히로 / 이선희 옮김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홍익출판사	30대
1999	캔 웨버 / 서필봉 옮김	70일간의 추리여행	새터	70일

1986	林史典, 金子博, 鶴岡昭夫, 教育技術研究所	国語基本用例辞典	教育社	国語
1983	司馬遼太郎	胡蝶の夢	新潮文庫	胡蝶
2003	遠藤周作	沈黙	新潮文庫	沈黙
1996	江国香織	つめたいよるに	新潮文庫	つめ
1988	渡辺淳一	花埋み	新潮文庫	花

## II. 本論

## 1. アスペクトに関する一般的な定義 -時間性(Temporality)とアスペクト-

時間性を表す文法形式として、テンス(tense)とアスペクト(aspect)が挙げられる。金水(2000)<sup>10</sup>)では、時間性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ある文が発話され、その文によって何らかの事柄が表現されたとき、その表現された事柄は何らかの時間的な性質を帯びざるを得ない。例えば、その事柄が何らかの出来事を表し、その出来事が発話時から見て過去のことなのか、現在のことなのか、未来のことなのか、という関係である。しかし事柄の内容によっては、そのような時間軸上の関係として捉えられない、時間を超越した言明であるかもしれない。その両方を含めて、文の**時間性**という言葉で捉えておこう。……(中略)…… 時間性のうち、上に述べたような発話時から見た出来事の先後関係のことを、**時制性**と呼ぶことにする。また、動詞「作る」「走る」などによって表される動的な出来事は、出来事の始まり、過程、終わりなどの段階を含んでいる。出来事を描写・記述する場合、その出来事をすべての段階を含んで丸ごと捉えるのか、またある段階のみを取り出して述べるのかという区別も、動的な出来事の解釈にとっては不可欠になる。このような区別を、**アスペクト性**と呼んでおこう。

時間性に関する文法範疇のうち、本論文の対象になるアスペクトをめぐっては、動的な出来事を表すか、そうでない出来事を表すかによってその表現形式がまったく違って来る。動的な出来事は一般的に動詞によって表現される場合が多い。そして、この動的な出来事は、

---

10) 金水敏・工藤真由美・沼田喜子(2000)のp.3からの引用である。以下では、金水(2000)と呼ぶことにする。

(1a) 太郎はラーメンを食べる。

(1b) 太郎はラーメンを食べている。

例文(1a)、(1b)のように、アスペクト性の区別を必要とする。つまり、(1a)と(1b)のアスペク的な意味は互いに異なる。このように、運動動詞の場合はアスペク的な対比が存在する。

(2a) テーブルの上に本がある。

(2b) \* テーブルの上に本があっている。

一方で、動詞の中でも状態動詞は、例文(2a)のように静的な出来事を表す。この場合は、例文(2b)が非文法的であることから、アスペクト性の区別は存在しないことが分かる<sup>11)</sup>。

形容詞、形容動詞、名詞述語は静的な出来事を表すのに用いられるが、この静的な出来事を表す場合は、一時的状態と恒常的状态とに分けられる。

(3a) 太郎は心臓病だ(\*心臓病だ+ている)。 (一時的状態)

(3b) 地球は丸い(\*丸い+ている)。 (恒常的状态)

例文(3a)と(3b)のように、静的な出来事を表す場合は、一時的状態であれ、恒常的状态であれ、アスペクト性の区別は存在しないことが分かる。

このことをまとめると<図1>のようになる。

---

11) 動詞の中には、動的な出来事を表さない動詞もある。「ある」「要る」などがその例である。本論文では、これらの動詞を状態動詞と呼び、状態動詞以外の動詞は運動動詞と呼ぶことにする。一方、形容詞、形容動詞、名詞述語(名詞+だ)は静的な事柄を表現するのに用いられるが、この形容詞、形容動詞、名詞述語に状態動詞を加えて、静的述語と呼ぶことにする。

< 図 1 >

意味	動的な出来事	一時的状態	超時間的・恒常的
品詞	運動動詞	静的述語	
アスペクト	○	×	×

## 1.1. 日本語におけるテンスとアスペクト

### 1.1.1. テンスを表す形式

テンスとは、出来事が時間軸上に占める位置を、発話時点あるいは基準時点との前後関係という観点から表示する文法的カテゴリーである。そして、テンスには、発話時と出来事時との外的時間関係を表す「絶対テンス」と、主文の述部が示す時点を基準にして、その前後関係を述べる「相対テンス」がある<sup>12)</sup>。

Comrie(1976)では、「絶対テンス」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義している。

Tense relates the time of the situation referred to some other time, usually to the moment of speaking.

(テンスは、さしだされた場面 situation の時間をべつの時間に、ふつうは発話の瞬間 moment に関係づける。)

Since tense locates the time of situation relative to the situation of the utterance, we may describe tense as deictic.

(テンスは、発話の場面との関係において、場面の時間を位置づけるので、指示的 deictic である、ということが出来る。)<sup>13)</sup>

12) 本論文では、「相対テンス」については言及しない。

13) 山田小枝訳(1988) pp.10からの引用である。

このように、テンスとは、話し手がある出来事を述べる時、出来事が指し示す運動や状態が、発話時を基準として時間的にどういう位置を占めるかを表すための文法的カテゴリーであ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 (4) 太郎が運動場を走る。
- (5) 太郎が運動場を走った。
- (6) 太郎が運動場を走っている<sup>14)</sup>。

例文(4)は、出来事(「走る」)が発話時より以後であることを示し、例文(5)は、発話時より以前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例文(6)の場合は、出来事が発話時と同時に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れらは、各々<未来><過去><現在>というテンス的対立をなしている。

現代日本語におけるテンスを表す形式は<図 2 >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図 2 >

非過去	過去
スル	シタ
シテイル	シテイタ

「スル」形式は非過去、即ち、現在と未来を表し、「シタ(シテイタ)」形式は過去を表す。そして、非過去を表す「スル」形式が、どういう場合に現在を表し、どういう場合に未来を表す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簡単に触れたいと思う。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14) <太郎が庭で遊んでいる。(現在) / 台風で家が倒れていた。(過去)> このように、テンスのカテゴリーでは、「シテイル」も「スル」形式の一つであり、「シテイタ」も「シタ」形式の一つである。

- (7) 机の上にノートがある。  
(8) 太郎はラーメンを食べる。

例文(7)と(8)の「ある」と「食べる」は、同じく非過去を表す「スル」形式であるが、例文(7)は現在を、例文(8)は未来を表している。この使い分けの基準になるのは動詞の語彙的な意味であろう。つまり、状態動詞の場合は「スル」形式で現在を表し、運動動詞の場合は「スル」形式で未来を表すことになる。

### 1.1.2. 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

Comrie(1976)では、「アスペクト」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義している。

As the general definition of aspect, we may take the fomulation that ‘aspects are different ways of 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

アスペクトの一般的な定義としては、「アスペクトは場面の内的な時間構成をとらえる、さまざまなし方である」という公式を、われわれは採用することにする。<sup>15)</sup>

このように、アスペクトとは、運動の内的な時間的構成をとらえる仕方を表す文法的カテゴリーであ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 (9) 太郎がご飯を食べる。  
(10) 太郎がご飯を食べている。

---

15) 山田小枝訳(1988) pp.11-12からの引用である。

例文(9)と(10)は、同じく「食べる」という運動を描写する文である。しかし、例文(9)の場合は、「太郎がご飯を食べる」という運動について、その内部の様態には目を向けないで(内的な局面として分割しないで)ひとまとまり的(globality)にとらえているものである。それに対して例文(10)の場合は、「太郎がご飯を食べる」という運動について、ある程度の期間持続するものとし、その運動の中に視点を置いて、内部の様態(実際に「食べる途中」という行為)を内的な局面として分割して表現しているものである<sup>16)</sup>。

そして、現代日本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は<図3>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図3>

完成相	継続相
スル	シテイル
シタ	シテイタ

### 1.1.3. 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相違点

前章では、現代日本語における「時間性(temporality)」を表す文法形式として、「テンス」と「アスペクト」について述べたが、本章では、その両方の違いについて簡単にまとめたいと思う。

Comrie(1976)では、「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相違点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although both aspect and tense are concerned with time, they

16) <太郎がご飯を食べた。(完成相) / 太郎がご飯を食べていた。(継続相)> このように、アスペクトのカテゴリーでは、「シタ」も「スル」形式の一つであり、「シテイタ」も「シテイル」形式の一つである。

are concerned with time in very different ways. As noted above, tense is a deictic category, i.e. locates situations in time, us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moment, though also with reference to other situations. Aspect is not concerned with relating the time of the situation to any other time-point, but rather with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the one situation; one could state the difference as one between situation-internal time(aspect) and situation-external time(tense). アスペクトもテンスもともに時間とかかわっているのだが、しかし、そのかかわり方はまったくことになっている。まえにのべてあるように、テンスは指示的なカテゴリーである。つまり、テンスは、ふつうは現在の瞬間に関係づけることによって、場面を時間のなかに位置づけているのである。もっとも、もうひとつの、べつの場面に関係づけることによって、場面を時間のなかに位置づけることもあるのだが。しかし、アスペクトのほうは、ほかのなんらかの時点に場面の時間を関係づけるようなことはしない。それはむしろひとつの場面の内的な時間構成にかかわっている。このちがいは、場面の内的な時間 situation-internal time(アスペクト)と場面の外的な時間 situation-external time(テンス)とのちがい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らう<sup>17)</sup>。

このように、「テンス」と「アスペクト」はともに、出来事の時間性(temporality)を表す文法形式である。しかし、その出来事への関わり方は異なっている。つまり、テンスは、出来事を基準時との関係によって時間軸上に位置づける文法的カテゴリーであるのに対して、アスペクトは、一つの出来事の内的な時間構成(局面)を問題にする文法的カテゴリーである。

現代日本語における「テンス」は、「スル(シテイル)」形式と「シタ(シテイタ)」形式で表される。一方、「アスペクト」は、「スル(シタ)」形式と「シ

---

17) 山田小枝訳(1988)、pp.14からの引用である。

テイル(シテイタ)」形式で表される。これをまとめると<図4>のようである。

<図4>

テンス \ アспект	完成相	継続相
非過去	スル	シテイル
過去	シタ	シテイタ

## 1.2. 韓国語におけるテンスとアспект

### 1.2.1. テンス・アспектに関する先行研究

現代韓国語におけるテンス・アспектに関する先行研究は、研究者の立場によってその見解が異なっている。つまり、テンスとアспектを区別せず、両者が未分化した「テンス・アспект(時相)」というカテゴリーを設ける見解もあり、テンスとアспектを区別して「テンス」と「アспект」を別なカテゴリーとして設ける見解もある。そして、アспектは存在しないでテンスだけがあるとする見解もある。

このように、同じ「テンス」「アспект」「テンス・アспект(時相)」などという用語は研究者によってその意味が異なる場合がある。

本論文では、テンスとアспектに関する先行研究を次のように大きく三つに分けてまとめたいと思う<sup>18)</sup>。

第一は、「テンス」と「アспект」とを区別しないで、「テンス・アспект(時相)」的にとらえる見解である<sup>19)</sup>。周時経(1910)では、時制は「이 ㅁ(現

18) 李南淳(1990)のpp.379~387を参考にしている。

19) 主な研究者としては、周時経(1910) 朴勝彬(1935) 催鉉培(1937) などが挙げられる。

在)」「간 때(過去)」「올 때(未来)」の三つに分けられ、このうち「간 때(過去)」は、「다 되어 있는 것」と「되었다가 없어진 것」という意味を表すとしている。また、「다 되어 있는 것」は「었」によって、「되었다가 없어진 것」は「었었」によって各々表示される。そして、この「었」は現在完了を、「었었」は過去完了を意味すると説明している。

このように、周時経(1910)では、テンスを記述するのにあたって、その内容には「現在完了」「過去完了」のような相的な要素も含まれていて、テンスとアスペクトとは未だ分化していないカテゴリーとしてとらえ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

朴勝彬(1935)でも、過去を表す「았」が、場合によっては「現在完了」をも表し、「있었」は「大過去」と「過去完了」とに下位分類されるとし、周時経(1910)と同じく、相的な要素がテンス的な要素と未分化の概念でとらえられている。

第二は、「テンス」と「アスペクト」とを区別し、両方を別のものとしてとらえる見解である<sup>20)</sup>。

まず、羅鎮錫(1972)では、国語の相は「나아감(進行相)」と「끝남(完了相)」との2つがあり、「끝남(完了相)」の形態素は「았」または「ㄴ」であって、「나아감(進行相)」はこれらの欠如である消極的な方法で現れるとした。

張奭鎭(1973a)では、述語動詞の意味論的な特徴と関連がある持続、完了、意図などのような、時相あるいは様相を配慮しない時制体系は好ましくないという見解を示している。述語動詞の意味と関連して「-아 있-」「-고 있-」が完了の時相と継続の時相を示しているとした。

金声和(1989)では、国語の相を大きく、持続相と終結相とに分け、相の形

---

20) 主な研究者としては、羅鎮錫(1964)、羅鎮錫(1972)、張奭鎭(1973a)、徐正洙(1986)、金声和(1989)、催東柱(1995)などが挙げられる。

態は、語尾「-어」あるいは「-고」と助動詞の結合形で現れるとした。そして、その助動詞の意味によって、16の下位分類された相で国語の相は表示されるとした。

このように、1960年代に入っては、「テンス」「叙法(mood)」などの研究とともに、「アスペクト」も一つの独立的な文法的カテゴリーとして本格的に研究されるようになった。

第三は、国語には「アスペクト」の概念は存在せず、「テンス」の概念だけが存在するという見解である<sup>21)</sup>。

韓東完(1996)では、先行研究で相的な意味を表す形式としてとらえてきた「-았-」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았-」は、差し出された状況の時間的な位置が基準時に対して先時的であることのみを指示するだけで、その状況が完結されたものか、未完結されたものか、あるいは、完結された結果状態が持続するものか、そうでないかという意味情報は指示していない。つまり、「-았-」の意味として注目された過去完結、過去完結状態、過去進行、過去反復、過去確定、既定、現在状態、現在持続、現在完結状態、未来完結、完了、完結、終結、断続などの相的な意味のすべては「-았-」自体のもつ意味というより、「-았-」と統合された文脈の前後関係によって、特に、用言の性格がどのようなものかによって導かれる意味にすぎない<sup>22)</sup>。

韓東完(1996)では、このように「-았-」の意味として注目されきた相的な意味は、「-았-」と統合された用言の性格によるものであり、「-았-」には、相

---

21) 主な研究者としては、金次均(1980a)、韓東完(1996)などが挙げられる。

22) 韓東完(1996)のpp.43からの引用である。(筆者訳)

的な意味はないとしている。

以上のアスペクトに関する先行研究の内容をふまえた上で、本論文では、基本的に「テンス」と「アスペクト」とを区別する見解を取り入れ、論を展開して行こうと思う。

### 1.2.2. テンスを表す形式

- (11) 나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現在)  
(私は、今、家族たちと一緒に夕飯を食べている。)
- (12) 어제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過去)  
(昨日は、家族たちと一緒に夕飯を食べた。)

例文(11)は、非過去(この文脈では現在)を表し、例文(12)は、過去を表している。この例文で分かるように、現代韓国語におけるテンス形式は、一般的に「한다」(現代日本語の「スル」に相当する)形式と「했다」(現代日本語の「シタ」に相当する)形式が「非過去」と「過去」の対立を示している<sup>23)</sup>。

また、例文(11)で現在を表している「動詞語幹 + 는 + 다」形式の「-는-」について簡単に触れたいと思う。

- (13) \*오늘은 쉬는 날이다.  
(今日は休みだ。)
- (14) \*올 겨울은 굉장히 춥는다.  
(今年の冬は非常に寒い。)

---

23) 나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私は、今、家族たちと一緒に夕飯を食べている).(現在) / 나는 어제밤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私は、昨夜ここで友だちを待っていた).(過去)のように、「고 있다」形式は非過去を表す形式の一つであり、「고 있었다」形式は過去を表す形式の一つである。

(15) \*오늘은 방이 깨끗하다.

(今日は部屋がきれいだ。)

(16) \*길거리에 고양이가 죽어 있다.

(道端に猫が死んでいる。)

例文(13)~(16)で分かるように、形容詞、形容動詞のような「状態」を表す場合には、動詞述語の場合とは違って「-는-」が接続できない。また、「하고 있다(해 있다)」(現代日本語の「シテイル」に相当する)形式も、一部の例外はあるが一般的に「는다」形式は成立しない<sup>24)</sup>。

従来の研究では、一般的に動詞の現在形にだけ「-는-」という標示が用いられ、その他の用言には無標示を表す「∅」を用いていた。しかし、徐正洙(1986)では、「∅」を「-었-」「-었었-」などの形態と対立する概念として、すべての用言に用いている。そして、「∅」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は、時間との関係において超時間的(timeless)なものと時間的(temporal)なものとの2つの叙述的機能を示している。前者の場合の「∅」は、時間の流れとは関係ない恒久的な状態や事実を表す。つまり、現在、過去、未来などの時間的カテゴリーを超越した不変の真理や属性を表すものである。後者の場合(時間的叙述と関わった場合)の「∅」は、時間的流れに伴って変わる状態、動作、過程などを表すものである。この場合の「∅」は主に「現在」と関わった意味を表すが、それだけではなく「過去」や「未来」の時間と関わった時相的な意味をも示す<sup>25)</sup>。

24) <그들은 봄동안은 이곳에 머물러 있다。(彼らは春の間は、ここにとどまっている。) / 그저 종일 취해서 늘어진 채 기둥에 기대어 있다。(ただ一日中、酔っぱらってぐったりとなったまま柱にもたれている。)>などの例文は例外であるが、一般的に状態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は「-는-」の接続は不可能である。

25) 徐正洙(1986)のpp.98-99 (筆者訳)

このように、徐正洙(1986)では、「 $\emptyset$ 」を「超時間的な叙述」「現在」「未来」「過去」の四つの叙述的機能を持っているものとしてとらえている。そして、各々に当該する例文を挙げると次のようである<sup>26)</sup>。

<超時間的な叙述>

- (ア) 지구는 태양을 돈다. (動詞)  
(地球は太陽を回る。)
- (イ) 세상에는 만물이 있다. (存在詞)  
(世の中には万物がある。)
- (ウ) 꽃은 아름답다. (形容詞)  
(花はきれいだ。)
- (エ)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 (指定詞)  
(2足す2は4である。)

<現在>

- (オ) 그 사람은 요즈음 그 비밀을 안다.  
(その人は、この頃その秘密を知っている。)
- (カ) 그 학생이 지금 공을 찬다.  
(その学生は、今ボールを蹴っている。)
- (キ) 학생이 한 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  
(学生が1時間の間本を読んでいる。)
- (ク) 나는 너를 용서한다.  
(私は君を許す。)

---

26) 例文は徐正洙(1986)から借りてあげておく。各々の例文に関する詳しい説明は、徐正洙(1986)を参照されたい。

<未来>

(ヶ) 그이는 내년에 외국에 간다.

(彼は、来年外国へ行く。)

(코) 그런 나쁜 사람은 곧 망한다.

(そんな悪い人はすぐ滅びる。)

<過去>

(사) 그는 아리랑 한 개비를 윤희섭에게 주었다. 그리고  
라이터의 불을 켜서 내밀었다. 윤희섭은 순순히 담배  
를 피우고 있다.

(彼は、アリラン一つをユンヒソプにあげた。そして、ライターの  
火をつけて差し出した。ユンヒソプは黙ってタバコを吸ってい  
る。)

徐正洙(1986)でいう、「 $\emptyset$ 」の表す過去の用法については、本論の3章でま  
た触れたいと思う。

現代韓国語におけるテンス形式をまとめると<図5>のようである。

<図5>

非過去	過去
한다	했다(했었다)
하고 있다 해 있다	하고 있었다 해 있었다

### 1.2.3. 아스펙트를表す形式

現代韓国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は、研究者によってその定義や用語が一致しない場合が多いが、本論文では、1.1.2.章で定義したようにComrie(1976)の見解を取り入れることにする。

まず、現代韓国語における「完成相」を表す形式は次のようである。

- (17)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난다.  
(私は、明日、友だちに会う。)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私は、昨日、友だちに会った。)
- (18) 그는 한약을 먹는다.  
(彼は、漢方薬を食べる。)  
그는 한약을 먹었다.  
(彼は、漢方薬を食べた。)
- (19) 그녀는 다음달에 귀국한다.  
(彼女は、来月に、帰国する。)  
그녀는 지난달에 귀국했다.  
(彼女は、先月に、帰国した。)

例文(17)～(19)で分かるように、現代韓国語における完成相を表すのは「한다(했다)」形式である。そして、「継続相」(非完成相)を表す形式については、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 (20) 그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  
(彼は、友だちに会っている。)  
그는 어제 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彼は、昨日、友だちに会っていた。)

(21) 지금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다.

(今、外では風が吹いている。)

그날 저녁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その日の夜は、風が強く吹いていた。)

(22) 동생은 지금도 잔다.

(妹は、今も眠っている。)

(23) 동생은 지금도 밥을 먹는다.

(妹は、今もご飯を食べている。)

(24) 도로에 모래가 뿌려져 있다.

(道路に、砂が蒔かれている。)

도로에 모래가 뿌려져 있었다.

(道路に、砂が蒔かれていた。)

(25) 길거리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

(道端に、子犬が死んでいる。)

길거리에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

(道端に、子犬が死んでいた。)

例文(20)~(25)で分かるように現代韓国語における「継続相」を表すのは「하고 있다(하고 있었다)」と「한다」形式である。そして、例文(20)から(23)までは「動作継続」を表し、例文(24)と(25)は「結果継続」を表している。

(26) 그는 거울 앞에서 양복을 입고 있다.

(彼は、鏡の前でスーツを着ている。)

(27) 그는 철봉에 매달려 있다.

(彼は、鉄棒にぶら下がっている。)

例文(26)、(27)の「입다(着る)」「매달리다(ぶら下がる)」のように、主体の動作による結果が再び主体に起るという再帰的な動詞の場合は、一般的に、「하고 있다」形式を用いて「動作継続」を表し、「해 있다」形式を用いて「結果継続」を表す。つまり、例文(26)の「입고 있다(着ている)」は「動作継続」を表すものであり、例文(27)の「매달려 있다(ぶら下がっている)」は「結果状態」を表すものである。

以上の内容から、現代韓国語における「完成相」「継続相」を表す形式は<図6>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 図 6 >

	完成相	継続相
形式	「한다」・「했다」	「하고 있다」・「하고 있었다」 「해 있다」・「해 있었다」 「한다」「했다」

## 2. アスペクト形式の表す意味・用法

### 2.1. 日本語における「完成相」と「継続相」

現代日本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は「スル(シタ)」と「シテイル(シテイタ)」である。しかし、その両者の基本的な意味は異なってい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28) 太郎はビールを飲む(飲んだ)。

(29) 太郎はビールを飲んでいる(飲んでいた)。

例文(28)の「スル(シタ)」は運動(「飲む」)をひとまとまりとして完成的にとらえているのに対して、例文(29)の「シテイル(シテイタ)」は運動(「飲む」)を継続的にとらえている。

< 図 7 >

テンス \ アспект	完成相	継続相
非過去	スル	シテイル
過去	シタ	シテイタ

そして、その「スル(シタ)」と「シテイル(シテイタ)」の意味を具体的に下位分類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sup>27)</sup>

< 図 8 >

スル	完成相	① 開始限界達成性	
		② 終了限界達成性	
シテイル	継続相	① 動作・作用の継続	基本的な意味
		② 動作・作用の結果の状態	
	③ 単なる状態	派生的な意味	
	④ パーフェクト(経験・記録)		
	⑤ くりかえし		

27) 吉川(1973)の分類を参考にしている。

「シテイル(シテイタ)」の表す諸意味の中で、①の「動作・作用の継続」と、②の「動作・作用の結果の状態」は基本的な意味であり、③の「単なる状態」、④の「経験・記録」、⑤の「くりかえし」は派生的な意味である。

この基本的な意味と派生的な意味とを区分する基準は、「スル(シタ)」と「シテイル(シテイタ)」の対立が生産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言い換えれば、派生的な意味は「スル(シタ)」と「シテイル(シテイタ)」との対立が弱化しているか、もしくはない場合を言う。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30) 太郎は、お父さんに似ている。(＊太郎はおとうさんに似た。)

(31) 太郎は、一昨年結婚している。(＊太郎は一昨年結婚した。)

(32) 太郎は、毎朝 7 時に起きています。(＝起きる。)

例文(30)は、「単なる状態」を表すもので、いわゆる形容詞的な述語として常に「シテイル」形式のみで現れる。「パーフェクト(経験・記録)」を表す例文(31)は、太郎が今も既婚者であることを前提として話している場合であり、この場合は「シタ」形式は用いられない。また、例文(32)は、「スル」と「シテイル」のどちらを用いてもその表す意味には何ら変りがないことを表している。つまり、派生的な意味は「スル」と「シテイル」との対立が弱化、あるいはないと言える。

そして、この「スル(シタ)」と「シテイル(シテイタ)」の諸用法に当該する例文を、<図 9>で一つずつ挙げておく。

<図 9>

スル	完成相	① 会議が <u>始まる</u> 。	
		② 帽子を <u>かぶる</u> 。	

シテイル	継続相	① 太郎が運動場で <u>走っている</u> 。	基本的な意味
		② 花子は今日きれいな着物を <u>着ている</u> 。	
		③ 太郎は、お父さんに <u>似ている</u> 。	派生的な意味
		④ 太郎は、一昨年結婚 <u>している</u> 。	
		⑤ 太郎は、毎朝 7 時に <u>起きて</u> いる。	

## 2.2. 韓国語における「完成相」と「継続相」

「完成相」を表す韓国語の「한다」(日本語の「スル」に相当する)形式と、「継続相」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日本語の「シテイル」に相当する)形式は、日本語の場合とはその状況が異なっている。

徐正洙(1986)では、次のような例文を挙げて、「한다」形式は、「完成相」だけではなく「継続相」をも表しうると記述している<sup>28)</sup>。

(シ) 아이가 지금 막(한창) 옷을 입는다.

(子供が、今、服を着ている。)

(ス) 그분이 지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あの方が、今、舞台上で歌を歌っている。)

(セ) 고구마가 지금 솥에서 익는다.

(さつま芋が、今、釜で煮えている。)

(ソ) 지금 바람이 분다.

(今、風が吹いている。)

上の例文は、「고 있다」あるいは「는 중이다」に置き換えられても、その

<sup>28)</sup> 例文は、徐正洙(1986)から借りて挙げて置く。

表す意味には何ら変りはない。

(タ) 아이가 지금 막(한창) 옷을 입고 있다. (=입는 중이다.)

(チ) 그분이 지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부르는 중이다.)

(ツ) 고구마가 지금 술에서 익고 있다. (=익는 중이다.)

(テ)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부는 중이다.)

このように、現代日本語の「スル(シタ)」形式は「完成相」のみを表すのに対して、現代韓国語の「한다(했다)」形式は「継続相」をも表し、日韓両言語が対照的であることが分かる。

< 図10 >

テンス \ アспект	完成相	継続相
非過去	한다	한다/하고 있다
過去	했다	했다/하고 있었다

## 2.3. 日本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完了)相」

### 2.3.1. 「パーフェクト相」の定義

本論文では、現代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の対照研究を主な目的とするため、以下のように「パーフェクト」を定義する<sup>29)</sup>。「パーフェ

29) 韓国語に関する先行研究においては、工藤(1982)でいう「パーフェクト相」を認めない研究者が多い。特に、韓国語だけを研究対象とする研究者のほとんど(南基心(1972), 徐正洙(1976), 李南淳(1981), 李南淳(1990), 金声和(1992))は、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相」を認めていない。しかし、日韓両言語の比較を研究対象とする研究者のなかでは、浜之上(1992)、安平鎬(2001)などが韓国語の「パーフェクト相」を認めている。

クト」に関する定義は基本的に工藤(1995)にしたがっている<sup>30)</sup>。

パーフェクトを表す「シテイル(シテイタ)」の意味は、基本的意味<継続性>に対して、<ある設定された時点において、それよりも前に実現した運動がひきつづき関わり、効力を持っていること>を表わしていると規定することが出来る。

- ① 発話時点、出来事時点とは異なる<設定時点>が常にあること。
- ② 設定時点にたいし出来事時点が先行することが表わされていて、テンス的要素としての<先行性>を含んでいること。
- ③ しかし、単なる<先行性>ではなく、先行して起こった運動が設定時点と結びつき=関連性をもっているにとらえられていること。つまり、運動自体の<完成性>とともに、その運動が実現した後の<効力>も複合的に捉えるというアスペクト的要素を持っていること。

また、工藤(1995)では、「パーフェクト」を「未来パーフェクト」「現在パーフェクト」「過去パーフェクト」とに下位分類している。

<未来パーフェクト>

- (ト) あなたが家庭をもつ頃には、わたしはもうとつくに死んでいるわよ。  
( \* もう死んだ )

<現在パーフェクト>

- (ナ) 私の父は、ガンで、もう死んでいます。( =もう死にました )

<過去パーフェクト>

- (ニ) 私が帰郷した時には、父は既に3時間前に死んでいた。  
( \* 既に死んだ )

現代日本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に関する先行研究は、「完了」とい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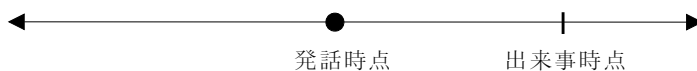
30) 工藤(1995)のpp.99からの引用である。

用語のもとで、「シタ」形式の場合だけをとりあげて問題としてきた。しかし、(ト)から(ニ)までの例文で分かるように、「シタ」形式は、〈現在パーフェクト〉のみを表しうる。つまり、「シテイル(シテイタ)」の形式の方が、相対的にテンスから自立した形で「パーフェクト」というアスペクト的意味を表していると思わ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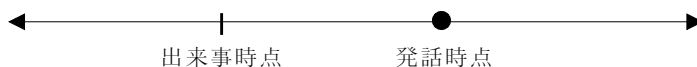
### 2.3.2. 「パーフェクト」と「テンス」との相違

絶対テンスは、発話時を基準軸として出来事を直接的にとらえるものである。つまり、発話時より以前(過去)であるか、発話時と同時(現在)であるか、発話時より以後(未来)であるかによって、各々を時間軸上に位置づけるものである。

(4) 太郎が運動場を走る。



(5) 太郎が運動場を走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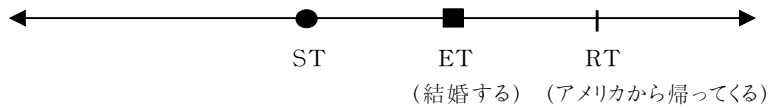


(6) 太郎が運動場を走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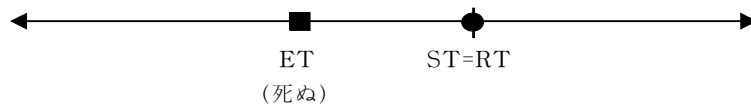
一方、「パーフェクト」の場合は「発話時(いま、ここ)」以外に、「設定時」が常に前提される。工藤(1995)にならい、発話時点をST、出来事時点をET、設定時点をRTとす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 (33) あなたがアメリカから帰ってきた頃には、私はとくに結婚して  
るわ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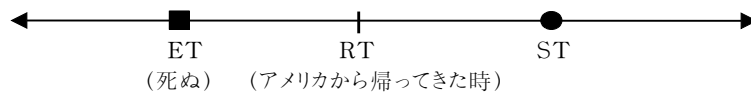
(発話時 < 設定時：未来のある時点)

- (34) 私の姉は、ガンで、もう死んでいます。



(発話時 = 設定時：現在時点)

- (35) 私がアメリカから帰ってきた時には、父は既に二日前に死んで  
いた。



(発話時 > 設定時：過去のある時点)

このように「設定時」は「発話時」より以前(過去パーフェクト)にもなりうるし、同時(現在パーフェクト)にもなりうるし、以後(未来パーフェクト)にもなりうる。なお、「パーフェクト」は、設定時と当該する出来事との関連(効力)を問題にする点においても「絶対テンス」と異なる。

### 2.3.3. 「パーフェクト」と「結果継続」との相違

2.3.1章で述べてあるように、「パーフェクト」は、ある設定された時点において、それよりも前に実現した運動がひきつづき関わり、効力を持っていることである。この効力とは、広い意味での「運動の結果」であろう。また、「結果継続」とは、既に先行して起った運動の結果が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から、広い意味での「パーフェクト」であろう。従って、「結果継続」を「状態パーフェクト」とし、これに対立するものを「動作パーフェクト」と区別する場合もある。本章では、この両者の相違点について簡単に述べることにする。

工藤(1995)では、「結果継続＝状態パーフェクト」と「動作パーフェクト」との相違点を次のように記述している。

- ① 結果をもたらす先行した運動を直接とらえているか否か
- ② 運動の必然的な直接的な結果か、偶然的な間接的な結果か
- ③ 結果の継続＝顕在性を前面にだしてとらえているか否か

これらの相違点はどういう意味であるか例文をあげながら説明したいと思う。

(36) 父はガンで去年死んでいる。

(37) 庭に子猫が死んでいる。

例文(36)は、運動(「父の死」)を直接にとらえているのに対して、例文(37)が直接にとらえているのは、目の前にある結果状態(「子猫の死」)であり、その結果状態をもたらした運動については直接にとらえてはいない。例文(36)のように、運動を直接にとらえるのは「動作パーフェクト」であり、例文(37)のように、運動を直接にとらえないのは「結果継続＝状態パーフェクト」である。

なお、例文(36)は、目の前に父の死体がいなくてもかまわないが、例文(37)

は、目の前に子猫の死体がいなくてはならない。つまり、「結果継続＝状態パーフェクト」の場合は、結果の継続＝顕在性を前面にだしてとらえていると言える。

## 2.4. 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完了)相」

現代日本語の「シテイル」形式には、2.3.1.章で述べたように「パーフェクト」を表す機能がある。

(38) すでにその前日、信長が本能寺で死んでいることを、藤孝は知らない。 (胡蝶)

(39) 信長は、すでにその前日、本能寺で死んでいる。

これに対して、現代韓国語の場合は、「하고 있다(해 있다)」(現代日本語の「シテイル」に相当する)形式には、「パーフェクト」を表す機能はない。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40) 信長는 本能寺에서 죽었다.(\*죽고 있다 /\*죽어 있다)

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を表す形式は、一般的に「했다」(現代日本語の「シタ」に相当する)形式である。

しかし、本論文の重要なテーマの一つでもあるが、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を表すのに「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用いられる場合もあることを指摘したいと思う。これについての詳しい説明は3章で後述することにする。

「パーフェクト」をアスペクトの下位分類と認めた上で、日韓両言語におけ

るアスペクトを表す形式を改めてまとめると次の<図11>、<図12>のようになる。

<図11> 日韓両言語における完成相・継続相

アスペクト テンス	日本語		韓国語	
	完成相	継続相	完成相	継続相
未来	スル	シテイル	한다	하고 있다 해 있다
現在	—	シテイル	—	한다 하고 있다 해 있다
過去	シタ	シテイタ	했다	하고 있었다 해 있었다

<図12> 日韓両言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相

アスペクト テンス	日本語	韓国語
	パーフェクト相	パーフェクト相
未来	シテイル	(하고 있다) (해 있다) 했다
現在	シテイル ・ シタ	했다
過去	シテイタ	(하고 있었다) (해 있었다) 했었다

### 3. 日韓両言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

2章の<図12>でまとめたように、現代日本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は、「シテイル」と「シタ」形式である。そして、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は、基本的に「했다」形式である。しかし、本章では、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は、「했다」形式のみならず、「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も存在することを指摘する。

#### 3.1.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シテイル」と「シタ」

現代日本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は、「シテイル」と「シタ」形式である。両形式が「パーフェクト現在」性を有していることは、対応する否定表現が、いずれも「シテイナイ」形式であることから明らかであ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41) 今日までお小遣いはいくら使ったの? / まだ使ってないよ。

(42) 今日までお小遣いはいくら使ってるの? / まだ使ってないよ。

しかし、「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シテイル」と「シタ」形式は完全に同じであるとは言いがたい。工藤(1995)では、両形式の違い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sup>31)</sup>。

- ① シテイルは、出来事時点を示す形式とむすびつくが、シタは普通むすびつきえない。
- ② シテイルでは、過去の出来事を現在と関わらせるにあたって、<論理性

---

31) 工藤(1995)のpp.142からの引用である。

= 解説性 > を前面にだすことがあるが、シタはそうはならない。シタは日常会話で使われ、シテイルは、論述的な会話、文章にあらわれる。

まず、①の相違点について見てみよう。「シテイル」形式は以下の例文のように出来事時点を示す形式と共起することが出来る。

(43) 彼には2年前に一度会っている。

(44) 先月に一度タイ料理を食べている。

もし、例文(43)と(44)において、出来事時点を示す形式がないとすれば、「彼に会っている」「タイ料理を食べている」のように、動作継続の意味が出てしまう。一方、「シタ」形式は、「シテイル」の場合とは反対である。

(45) 彼には2年前に会った。

(46) 先月にタイ料理を食べた。

例文(45)と(46)は、過去の出来事時点を示す形式と共起しているが、この場合は「パーフェクト現在」の意味ではなく、完成相過去の意味になってしまう。

次に②の相違点について見てみよう<sup>32)</sup>。

(ヌ) 検察官の質問は推測を言うだけのもので、不適当であります。

証人はすでに聞いたことはないと答えています。

(ネ) ところが証人は今年の4月、本犯罪の2か月前、厚木から

長後町へひっこしている。なぜですか。

---

32) 例文は、工藤(1995)から借りて挙げておく。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シテイル」形式が現れるのは、二つの場合である。まずは、話し手の現在の判断を根拠づける過去の出来事を差し出す場合(例文(ヌ)に当該する)であり、そして、「なぜか」「真実かどうか」など、現在、話し手が問題としていて聞き手に説明、解答を求めている過去の出来事の場合(例文(ネ)に当該する)である。

### 3.2.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했다」

<図12>で示してあるように、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のは、基本的に「했다」形式である<sup>33)</sup>。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47) 아버지는 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お父さんは、ガンで、去年死んでいます。)

(48) 그는 삼년 전에 결혼했다.

(彼は三年前に結婚している。)(彼が既婚者であることを前提とする。)

例文(47)と(48)のように、現代韓国語では、「했다」形式を用いて「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している。しかし、本論文では「했다」形式のみならず、「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も「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い。実際に、本論文の調べたところ、次のような例文を見つけることが出来た。以下、「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用いられている実例を列挙する<sup>34)</sup>。

---

33) 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のは、基本的に「했다」形式であることは、多くの先行研究において指摘されている。主な研究者としては、伊藤英人(1989)、生越直樹(1995)、浜之上幸(1991)、浜之上幸(1992)、浜之上幸(1997)などを挙げる事が出来る。

34) 訳文は筆者による。

- (49) 나는 공산주의자로서의 투쟁경력은 없지만 왜놈들을 많이 죽인 경력은 가지고 있다. (여명)  
(私は、共産主義者としての闘争経歴はないが、日本人をたくさん殺した経歴は持っている。)
- (50) 최근에는 지향에너지 무기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 미국은 75년 이래 2종의 ASAT를 개발하고 있다. (KAIST-2081)<sup>35)</sup>  
(最近には、指向エネルギー武器として、レーザーを使用することを実験している。アメリカは、75年以来、2種のASATを開発している。)
- (51) 이학규가 지은 <결사행>은 이런 사당패들의 공연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KAIST-3679)  
(李学遠が執筆した<乞士行>は、こういう芸人だちの公演の姿を生々しく記録している。)
- (52) 에리히 하르트만 소령이 처음 소위로 동부전선에 부임했을 때, 중대장인 폰 보닌 소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KAIST-3667)  
(エーリッヒ・ハルトマン少佐が、始めて少尉として東部前線に赴任したとき、中隊長であるボン・ボニン少佐からこういう話を聞いたと記録している。)
- (53) 장지연은 <위암문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상도)  
(張志淵は、<韋庵文稿>にて、こういう事実を次のように記録している。)

35) この番号は、KAIST Concordance Programから得られた例文の番号である。

- (54) <사기> ‘관중열전’편에 관중과 포숙아의 두터운 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상도)  
 (<史記>の「管仲列伝」編に、管仲と鮑淑牙との厚い友情話しが出ている。)
- (55) 당시 소장파 학자였던 조강이 김정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 (상도)  
 (当時、少壯派の学者であった曹江が、金正喜に対して次のように話したことが記録に残っている。)
- (56) 그리고 나서 석승 큰스님은 임상옥이 마시던 빈 잔 속에 다시 찻물을 가득 부어 내렸었다. 그 향긋한 차의 향기가 아직도 풍겨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상도)  
 (それから、石崇僧は、林尚沃の飲み干した茶碗のなかに、再びお湯をいっぱい注いだ。その芳ばしいお茶の香りが今も流れてくるように感じられている。)
- (57) 공지영의 첫 소설<동트는 새벽>부터가 그러한 내부 파열의 체험을 다루고 있다. (봉순)  
 (孔枝泳の初の小説<동트는 새벽>から、そういう内部破裂の体験を扱っている。)
- (58) 북한의 병력은 인민군, 38경비여단, 유격대, 민청훈련소, 해군, 공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계 18만 4천 명에 달하고 있다. (여명)  
 (北朝鮮の兵力は、人民軍、38警備旅団、遊撃隊、民青訓練所、海軍、空軍などで構成されており、総計が18万4千名に達している。)

- (59) 그 빗소리를 뚫고 석승 큰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다.

(상도)

(その雨音をやぶって、石崇僧は、こう話した。その声が未だに耳元に錚々と聞こえている。)

- (60) 해밀턴의 아들은 자신의 『회고록(Reminiscenc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KAIST-3656)

(ハミルトンの息子は自分の『回顧録(Reminiscences)』にて、次のように話している。)

- (61) 이때의 모습을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도)

(この時の様子を<朝鮮王朝実録>に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 (62) <가포집>에서 임상옥은 이 여인을 단 한 번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상도)

(<稼圃集>で、林尚沃は、この女性について一度だけ次のように描写している。)

- (63) 목하 동지역의 빈집에 유격대가 주류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전쟁준비를 비약하고 이쪽 정보활동을 방해하는데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명)

(現在、同地域の空き家に遊撃隊が駐留しているが、その目的は戦争の準備を補益し、こちらの情報活動を妨害することであると報告されている。)

- (64) 흥경래와 김정희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를 선험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상도)

(洪景来と金正喜のような歴史的な人物たちは、我々にどうい  
う生き方が正しいのかを先験的に見せている。)

- (65) 이 문장은 만년에 저자가 자영해서 뽑아 추린 <적중  
일기>에도 함께 보이고 있다. (상도)

(この文章は、晩年に著者が自詠して選んで作った<寂中日  
記>にも見られている。)

- (66)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  
이 칼을 불교의 선가에서는 ‘활인도, 살인도’라고 부르  
고 있다. (상도)

(「人を殺すことも、活かすことも出来る刀」、この刀を仏教の  
禪家では、「活人刀、殺人刀」と呼んでいる。)

- (67) 이카로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신차의 이름  
은 김기섭 회장이 직접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도)

(イカロスはギリシア神話に出てくる人物で、新車の名前はキム  
キソップ会長が、自ら付けたと知られている。)

- (68)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IST-2835)

(27日午前、青瓦台で開かれた首席秘書官会議でも、この  
問題について深く議論されたと知られている。)

- (69)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협에 대한 대대  
적인 혁신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KAIST-2835)

(一方、青瓦台は、今度の事件をきっかけに、農協に対する  
大々的な革新方案を検討するよう、関連部処に指示したと知

られている。)

- (70) 중국의 한방고전인 <본초강목>과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술의 성분이 인체에 주는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KAIST-2634)

(中国の漢方古典である<本草綱目>と、わが国最古の医書である<東医宝鑑>では、松の成分が体に与える効果について、いろいろ言及している。)

- (71) 불교경전(仏教經典)에 보면 온화한 얼굴, 상냥한 말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KAIST-3652)

(仏教經典には、穏和な顔付き、優しい言葉遣い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

- (72) 어떻게든 <무엇을 할 것인가>가 품은 문체의식은 <인간에 대한 예의>에 와서 한결 또렷한 표현을 얻고 있다.

(봉순)

(とにかく、<무엇을 할 것인가>が抱いている問題意識は<인간에 대한 예의>に至って、いっそうはつきりとした表現を得ている。)

- (73) 자신의 어릴 적 성장기를 이처럼 짙막한 고백으로 시작한 임상옥은 자서를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다.

(상도)

(自分の子供のころの成長期について、このように短い告白で語り始めた林尚沃は、自叙を次のように続けている。)

- (74) <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사마천은 자신의 부친인 사마담(司馬談)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KAIST-1597)

(〈史記〉の終りの部分である「太史公自序」で、司馬遷は自分の父親である司馬談の言葉を引用している。)

- (75) 실제로 최근의 미시간주의 한 평결은 강간피해자는 즉각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만일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폭력도 행해지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된다.’는 위그모어(Wigmoer)의 견해를 여전히 인용하고 있다. (KAIST-2737)

(実際に、最近のミシガン州のある評決は、強姦被害者は直ちに起訴するのが当然のことであって、「もし、彼女がそうしなかったとすれば、それは、何の暴力行為もなかったことを効果的に主張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ウイグモア(Wigmoer)の見解を相変わらず引用している。)

- (76)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주성에서 생포한 숫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상도)

(〈朝鮮王朝実録〉には、定州城で生け捕りした敵の数について、次のように記している。)

- (77) 이리하여 이 집에선 딸만 나면 열다섯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곤 하였다하며, 그래서 딸애를 열다섯이 되기 전에 시집을 보내 구명토록 했다고 전하고 있다.

(KAIST-2665)

(こうして、この家では娘が生れると15歳を越える前に必ず死んでいたそうで、それで娘が15歳になる前に嫁がせて救命したと伝えている。)

- (78) 그 일이 있는 뒤부터 이 바위의 모양이 선녀같이 보이게 된 것이라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KAIST-2665)

(このことがあってから、この岩の姿が仙女のように見えるように

なつたと、今日まで伝えている。)

- (79) 세 사람이 모였던 대령강은 옛날에는 개사강 또는 박천강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고 <동국여지승람>은 전하고 있다. (상도)

(三人が集まった大寧江は、昔は、蓋泗江あるいは博川江とも呼ばれていたが、そこには次のような由来があると<東国輿地勝覽>は伝えている。)

- (80) 머리맡에는 항상 책이 산적해 있었으며 안두에는 언제나 삼척의 장검을 세워놓고 출입할 때는 언제나 이를 차고 다녔다고 전해오고 있다. (상도)

(枕元には、いつも本が山積しており、案頭には、いつも3尺の刀をおいて、出入りするときは、いつもこれをもって出掛けたと伝わっている。)

- (81)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1801년, 신유년 9월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상도)

(記録によると、この時は、1801年、辛酉年9月であったと伝わっている。)

- (82) 임상옥은 이처럼 암담했던 청년시절을 고백하고 나서 다시 다음과 같이 절규하고 있다. (상도)

(林尚沃は、このように暗澹とした青年のころを告白してから、また、次のように、絶叫している。)

- (83) <중앙은행론>은 이 문제에 대한 풍부한 논리적 근거와 최근까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KAIST-2837)

(<中央銀行論>は、この問題についての豊かな論理的根拠と、最近までの理論的な土台を提供している。)

(84) 부록으로 실린 ‘혁명을 위한 안내’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KAIST-2835)

(付録に添付されている「革命のための案内」は具体的な資料を提供している。)

(85) <표7>은 정상적인 임신 기간에 일어나는 몇 가지 대사전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KAIST-2623)

(<図7>は、正常な妊娠期間に起きる幾つかの代謝転換に関する資料を提示している。)

(86) 단락 (1)은 도입 단락인데, ‘과거에 안주하거나 미래를 걱정함은 헛되고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KAIST-2018)

(段落(1)は、導入段落であって、「過去に安住したり、未来を心配したりすることは余計なことであり、現在が一番重要である」という命題を提示している。)

(87) 임상옥의 오도송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상도)

(林尚沃の悟道頌は、次のような意味を抱いている。)

(88) 기록에 의하면 임상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상도)

(記録によると、林尚沃は次のように表現されている。)

(89)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도척을 대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상도)

(司馬遷が書いた<史記>にも、盜拓を大盜として記録しており、彼をこういうふうに表示している。)

(49)から(89)までは、現代日本語の「シテイル」形式に相当する「하고 있

다(해 있다)」形式で「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している例文である。以下の章では、このような実例をもとにして分析を行い、この「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をどう位置づけるかについて考察を行いたいと思う。

### 3.3. 資料の分析

#### 3.3.1. 現代韓国語における「하고 있다」形式の意味・用法

現代韓国語における「하고 있다」形式の基本的な意味は「動作継続」である。2.2.章でも述べてあるように、現代韓国語においては「한다」形式を用いても「動作継続」を表せるのだが、もっと明確に「動作継続」を表せる形式は「하고 있다」である。このことは、例文(90)と(91)のように、ある文において、時を表す時間副詞がなくても、いつも「動作継続」を表すことが出来ることから明らかである。

(90) 남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男の子が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ていた。)

(91) 남자아이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男の子が運動場を走っている。)

「하고 있다」は、基本的な意味である「動作継続」以外にも、時間や回数を表す副詞などの有標的な表示がある場合は、次のような意味をも表せる。

(92) 나는 가끔 뮤지컬을 보고 있다.

(私は、たまにミュージカルを見ている。)

(93) 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있다.

(二人は、未だ交際し続けている。)

例文(92)は、反復的な意味を表し、例文(93)は、持続的な意味(関係を維持している意味)を表している。この例文において、副詞「가끔(たまに)」、「계속(未だ)」を除くと「動作継続」の意味を表すようになる。また、「하고 있다」形式は、結果状態が継続することをも表す。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94) 그녀는 빨간 옷을 입고 있다.

(彼女は赤い服を着ている。)

以上のことから、現代韓国語における「하고 있다」形式のもつ意味・用法は<図13>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図13>

	意味・用法	例文
「하고 있다」	動作継続	남자아이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結果継続	그녀는 빨간 옷을 입고 있다.
	反復・持続	나는 가끔 뮤지컬을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있다.

しかしながら、<図13>では、3.2章であげられている(49)から(89)までの例文における「하고 있다」形式(本論文で「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と見ている形式)は、説明できないのではなかろうか。もちろん、(49)から(89)までの例文に現れる「하고 있다」形式は、構文的な制約があり、また、限られた語彙によって現れる用法かも知れないが、本論文で提示したように「パーフェクト現

在」を表す用例がかなり存在するのは事実である。

したがって、本論文では、現代韓国語における「하고 있다」の表す意味・用法は、〈図14〉のように考えるべきではないかと思う。

〈図14〉

	意味・用法	例文
「하고 있다」	動作継続	남자아이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結果継続	그녀는 빨간 옷을 입고 있다.
	反復・持続	나는 가끔 뮤지컬을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있다.
	パーフェクト現在	〈순조실록〉에는 홍경래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그를 표현하고 있다.

徐正洙(1986)では、現代韓国語における「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の表す意味について、〈図15〉のごとく五つに分けている。

〈図15〉

意味	例文	
超時間的 叙述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 (地球は、太陽の回りを回っている。)	状態の 叙述
現在の状態	그애가 그 여자를 알고 있다. (あの子が、彼女を知っている。)	状態性 動詞
現在の事件	아이가 지금 막 노래를 부르고 있다. (子供が、今歌を歌っている。)	非状態性 動詞
現在の持続	나는 그 사람을 오래동안 알고 있다. (私は、その人を長い間知っている。) 그분은 일주일동안 그 옷을 입고 있다. (あの方は、一週間ずっとその服を着ている。)	動詞

過去	<p>그때는 밤이 깊었다. 그런데 갑자기 성삼문은 세종의 부름을 받고 입궐하고 있다.  (あの時はもう夜も深かった。しかし、急に成三問は世宗大王の呼ばれを受けて宮殿に入っている。)</p> <p>서경덕은 명월이 서 있음을 보고 적이 놀라고 있다.  (徐敬徳は、明月の立っている姿をみて、いささか驚いている。)</p>	過去の状況と共起
----	---	----------

このように、徐正洙(1986)では、「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の意味を五つに分けているが、このうち「過去」を除いた四つの意味は、<図13>で示してある「하고 있다」の意味とあまり変りないと思われる。つまり、徐正洙(1986)でいう「現在の事件」は動作継続を、「現在の状態」は結果継続を、そして「超時間的叙述」と「現在の持続」は反復・持続を表し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しかし、徐正洙(1986)で「過去」を表すと分類した「하고 있다(해 있다)」については、少し説明を加えたいと思う。

- (ノ) 그때는 밤이 깊었다. 그런데 갑자기 성삼문은 세종의 부름을 받고 입궐하고 있다.  
(あの時はもう夜も深かった。しかし、成三問は急な世宗大王の呼ばれを受けて宮殿に入っている。)

上の例文は、過去を表す「있」形式と「고 있」形式が共起している。この現象について徐正洙(1986)では、日本語の場合と照らし合わせて説明しているが、それをまとめて簡単に述べておく。

過去を表す「있」形式と「고 있」形式が共起、あるいは交替できる現象は、日本語にも見られる現象である。Miura(1974)では、日本語に見られるこの現象を「時間的相関性(time-relationship)」<sup>36)</sup>という概念を利用して、基

準時点が過去の出来事時点に移動したり、また発話時点にもどったりすることによって、動詞の基本形と過去形が交替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説明しているとした。なお、徐正洙(1986)では、次のような説明もつけ加えている。

国語(あるいは、日本語)の時相を表す形態は、形式的に必要とされる文法的(構文的)な範疇というより、主に時相的な意味を表すための意味的な要素として導入されるものであるといえる。つまり、国語における時相を表す形態は、時相的な意味の伝達がもっとも重要な機能であって、文法的、形式的な関係を表すことはあまり重要な機能ではない。(中略)

このような立場から考えると、過去の出来事の叙述であるという前提がある場合は「고 있」と「있」の交替使用は、問題にならない。過去の出来事の叙述であるという大前提がある以上は「고 있」であれ、「있」であれ何ら意味的な違いがないからである<sup>37)</sup>。

このように、徐正洙(1986)では、現在述べている出来事が過去であるという前提さえあれば、「하고 있다」形式も過去の出来事を表すことが出来るとして、この「하고 있다」形式を過去の出来事を叙述する形式として規定している。つまり、「하고 있다」形式は、「パーフェクト」を表す形式ではなく、過去を表す形式としてとらえられている。また、注28)にあげている先行研究においても、「パーフェクト」を表す形式は「했다」形式であるとしている。

しかし、本論文では、徐正洙(1986)で「過去」と規定している「하고 있다」形式を「パーフェクト」を表す形式であると見做している。

### 3.3.2. 現代韓国語における「해 있다」形式の意味・用法

---

36) 徐正洙(1986)では、Miura(1974:96-99)を引用している。そして、この「時間的相関性」は、本論文でいう「パーフェクト」であると思われる。

37) 徐正洙(1986)のpp.117-118 (筆者訳)

現代韓国語における「해 있다」形式は、基本的に「継続性」を表す形式の一つである。例文(95)と(96)は、結果状態が継続し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

(95) 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잠들어 있다.

(私がしばらく外出しているうちに眠っている)

(96) 그는 건물 앞에 서 있다.

(彼は建物の前に立っている。)

「하고 있다」形式の場合は、自動詞(瞬間的な動作を表す自動詞を除く)、他動詞、使役形動詞、受身形動詞(一部の受身形動詞を除く)などが前接出来る。一方、「해 있다」形式の場合は、瞬間的な動作を表す自動詞と「하고 있다」と結合できない一部の受身形動詞が前接出来る。つまり、「해 있다」形式は、「하고 있다」形式と結合出来ない動詞と結合することによって、全ての動詞に継続の意味を与えている言えるだろう<sup>38)</sup>。

「해 있다」形式の表す意味は、基本的に「結果継続」であるが、本論文では、「하고 있다」形式と同じく「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せると考えている。

< 図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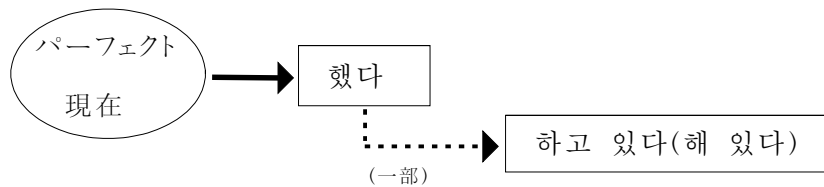
	意味・用法	例文
「해 있다」	結果継続	그는 건물 앞에 서 있다.
	パーフェクト現在	이카로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신차의 이름은 김기섭 회장이 직접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하고 있다」と「해 있다」形式に前接が可能な用言については、孫世 모듈(1996)を参考にした。

### 3.3.3.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形式

現代韓国語における「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は、基本的には「했다」形式であるとされてきたが、3.2.章で例文を挙げたように「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のに「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を用いる例文も少なくないことが分かる。

本論文では、この事実から、「했다」形式のみならず「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も「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であると主張する。



本論文で調べた例文を分析してみると、具体的に「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のは次の動詞と共起する場合である。

< 図14 >

가지다(持つ)	기록하다(記録する)	나오다(出る)
남다(残る)	느껴지다(感じられる)	다루다(扱う)
달하다(達する)	들려오다(聞こえてくる)	말하다(話す)
묘사하다(描写する)	보고되다(報告される)	보이다(見える)
부르다(呼ぶ)	알려지다(知られる)	언급하다(言及する)
얻다(得る)	이어가다(続ける)	인용하다(引用する)
적다(記す)	전하다(伝える)	전해오다(伝えてくる)
전해지다(伝わる)	절규하다(絶叫する)	제공하다(提供する)
제시하다(提示する)	지니다(抱く)	표현되다(表現される)
표현하다(表現する)		

### 3.3.4. 主張の根拠

本論文で「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形式であると主張する根拠として、「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を「했다」形式に置き換えるテストをあげることが出来る。

以下の例文における「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は、「했다」形式に置き換えることが出来る例文である。

- (97) 마르코 폴로는 ‘호화롭고 번영된 큰 도시’라 하여 북경을 ‘칸발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기록했다.)

(상도)<sup>39)</sup>

(マルコポーロは「豪華で繁栄した大都市」という意味で、ペキンに「カンバリク(Khanbalik)」と記録している。)

一方で、「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を「했다」形式に置き換えられない例文もあ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 (98) 비록 처복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두 부인에 대한 김정희의 사랑은 각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알려졌다.)

(상도)<sup>40)</sup>

(お世辞でもよい妻であるとは言えないが、二人の妻に対する金正喜の愛情は格別であったと知られている。)

例文(98)の「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は「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基

---

39) 例文(50), (53), (56), (60), (62), (63), (66)~(69), (72), (73), (82), (87)もこれに属する。

40) 例文(49), (51), (52), (54), (55), (57)~(59), (61), (64), (65), (70), (71), (74)~(81), (83)~(86), (88), (89)もこれに属する。

本形である「했다」形式に置き換えられない。つまり、この文章は「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でのみ成り立つ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この事実が、「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もう一つの形式であることを裏付ける根拠であると言えるだろう。

「パーフェクト現在」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のなかで「했다」形式に置き換えられない動詞をまとめると<図15>のようである。

<図15>

가지다(持つ)	기록하다(記録する)	나오다(出る)
남다(残る)	다루다(扱う)	달하다(達する)
들려오다(聞こえてくる)	말하다(話す)	보이다(見える)
언급하다(言及する)	인용하다(引用する)	적다(記す)
전하다(伝える)	전해오다(伝えてくる)	전해지다(伝わる)
제공하다(提供する)	제시하다(提示する)	표현되다(表現される)
표현하다(表現する)		

#### 4. 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うち(に)」節と「사이(에)」節

現代日本語における「うち(に)」節は、主節と従属節との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の一つである。

- (99) ひざに頭をのせてなでているうちに、いつのまにか固くなって、  
つめたくなってしまった。(つ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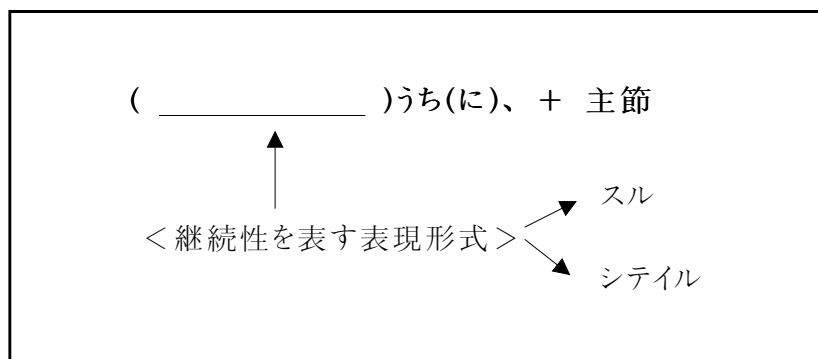
例文(99)は、従属節の表す期間(なでている期間)の間に、主節の表す出来事(つめたくなってしまったこと)が起ることを意味する<sup>41)</sup>。

現代韓国語における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のなかで、「うち(に)」節に対応する形式の一つとして「사이(에)」節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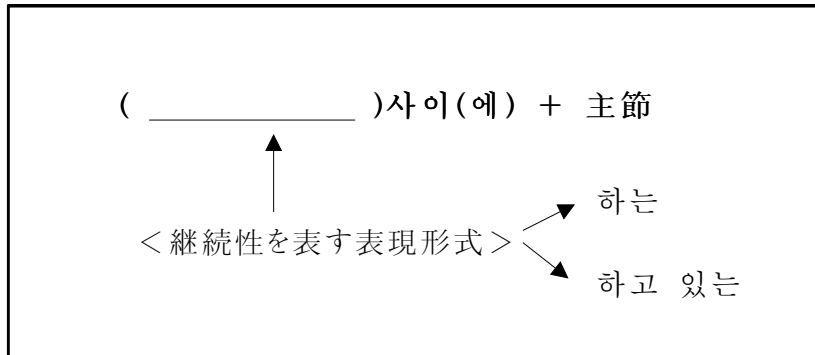
(100) 그런데 너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사이에 생각이 달라  
졌어. (영혼)  
(ところが、君と一緒に笑って対話しているうちに考えが変わっ  
たの。)

例文(100)も「うち(に)」節と同じく、従属節の表す期間(対話している期間)の間に、主節の表す出来事(考えが変わったこと)が起ることを意味する。

工藤(1995)でいう共起関係・期間限定を表す「うち(に)」節と韓国語の「사이(에)」節は、主節の出来事が発生する期限を限定するので、この従属節に現れるのは、ある程度の時間幅をもっている出来事が継続することを表す述語形式である。つまり、このような構文では従属文が「継続性」を表しやすい。



41) 工藤(1995)では、「うち(に)」節を「主節が表す出来事の発生する期間を限定する」つまり、「共起関係・期間限定」を表す構文であると説明している。



このように、「うち(に)」節と「사이(에)」節は、かなりのところ似ているが、ともに「継続性」を表している表現であっても、場合によって「スル(하는)」形式が用いられったり「シテイル(하고 있는)」形式が用いられったりする。

4章では、「スル(하는)」形式に現れる動詞、「シテイル(하고 있는)」形式に現れる動詞を調査することによって、両形式の間に存在する相違点について考察して行きたいと思う。

#### 4.1. 現代日本語における「うち(に)」節

福嶋(2001)では、現代日本語における「うち(に)」節を構成する述語が、「スル」形式であるか「シテイル」形式であるかの分布について調査を行っており、<図15>のような結果を報告している<sup>42)</sup>。

- (ハ) しかし歩いているうちに腕が悪くなってきて、道端に鼻面をすりつけるようにして胃の中の物を出しました。
- (ヒ) 頭骨にあてられた彼女の細い指をしばらく眺めているうちに、僕は以前どこかでその頭骨を見たことがあるという強い既視感

42) 用例の出典は、『CD-ROM版新潮文庫の100冊』(新潮社版)である。

のようなものに襲われた。

(フ) 私は話しているうちに、薄気味悪くなってしまった。

(ヘ) とにかく、それで倉庫を整理しているうちに、彼は一九一八年に義弟が置いていった箱をみつけて開いてみたの。

(ホ) 残りの七人の訓練をつづけるうちにいくつかの問題点があきらかになりました。

<図15>

総用例の数	121例	比率(%)
「シテイル」形	112例	93
「スル」形	9例	7

<図15>で分かるように、現代日本語の場合は「シテイル+うち(に)」が多く用いられるのに対して、「スル+うち(に)」は相対的に少ない。また、全体的な傾向としては、結果継続を表す「シテイル」形式よりも、動作継続を表す「シテイル」形式の方が多いとしている。

福嶋(2001)で報告している用例の分析の結果によると、「スル」形式で現れたのは9例であり、その動詞は、「繰り返す」「つづける」「書く」「通う」「進める」「進む(2例)」「続く(2例)」であるとしている。

「スル」形式で現れるこれら動詞の共通点として、動詞の表す意味自体に一定の継続性が含まれていると言うことが出来る。

また、本論文でも、同じく「スル」形式で現れる「うち(に)」節の例文を調べており、次のような例文が見つかった。

(101) 話すうちにぎんは万年が医師であるのを忘れた。今が幼い時

- の続きとしか思えなかった。 (花)
- (102) 体を壊されたうえ、私はもう一人前の女ではなくなったのか、考  
えるうちにぎんの頭は憤りで熱くなった。 (花)
- (103) 田舎の家と嫁のあり方を見るうちに萩江には嫁ぐことの意味が  
分らなくなっていた。 (花)
- (104) 口で唱えながら鏡の中の場所と大きさを確かめるうちに、昼間  
見た絵図が裸像の上に重なり、皮膚が剥け、自分の内臓を  
覗いているような気持になる。 (花)
- (105) しかしそうすればするほど、武士の子として培われた功名心、  
政治的野心、知識欲といったものが心の中をかけめぐり、それ  
を圧さえるうちにすっかり痩せ細ってしまいました。 (花)
- (106) 彼等は逃げた女の経路を追ううちに吟子の所へ逃げ込んだこ  
とを聞きつけ、おしかけてきたのである。 (花)
- (107) おそらく彼は今日まで、さまざまな宣教師たちを取り調べるうちに  
どのように相手を屈伏させるかを考えつづけたに違いなかつ  
た。 (沈黙)
- (108) 「にじだ、にじ。」と弟がさけぶうちに、早くもにじははかなく消  
えようとしていた。 (国語)

上の例文で現れる動詞は、「話す」「考える」「見る」「確かめる」「  
「圧さえる」「追う」「取り調べる」「叫ぶ」である。これらの動詞も、動詞  
の表す意味に一定の継続性が含まれていると言える。

現代日本語のアスペクト形式のうち、「継続性」を表すのは「シテイル」形  
式である。そのため、文脈上「継続性」を表しやすい「うち(に)」節において  
も「シテイル+うち(に)」形式が多く用いられることは納得のいくものである。な

お、例文(101)から(108)までの調査結果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スル+うち(に)」形式が成立する動詞は、その動詞のもつ語彙的な意味に「継続性」が含まれているものに限られている。したがって、「うち(に)」節の場合は、前接する出来事が「シテイル」形式であれ、「スル」形式であれ「継続性」を表すことになる。

#### 4.2. 現代韓国語における「사이(에)」節

本章では、現代韓国語における「사이(에)」節を構成する述語が、「한다」形式であるか「하고 있다」形式であるかの分布について調査を行っており、<図16>のような結果が得られた。

<図16>

総用例の数	総例 (1189例)	異なり語数 (347例)	比率(%)	
			総例	異なり語数
「하고 있다」形	197例	90例	17	26
「한다」形	992例	257例	83	74

<図16>は、「사이(에)」節の場合は、日本語の場合とは反対に、「하는+사이(에)」形式が「하고 있는+사이(에)」形式より相対的に多いことを示している。

#### 4.3. 資料の分析

##### 4.3.1. 「하는 사이(에)」形式

「사이(에)」節を構成する述語が、「한다」形式で現れた992例のうち、異なり語数は257の例である。「한다」形式で現れた動詞は、<図17>のよう

である。

<図17>

가다(行く)	간호하다(看護する)	갈등하다(葛藤する)
갈팡질팡하다(うろたえる)	감추다(隠す)	개시하다(開始する)
거듭하다(重ねる)	건너다(渡る)	건너오다(渡ってくる)
걷다(歩く)	걸어가다(歩いていく)	걸어오다(歩いてくる)
경과하다(経過する)	계속하다(継続する)	관찰하다(観察する)
교섭하다(交渉する)	구경하다(見物する)	구하다(救う)
그럭저럭하다(そうこうする)	근무하다(勤務する)	기다리다(待つ)
기록해가다(記録していく)	격이다(折れる)	꺾어내다(誘い出す)
꾸다(夢見る)	끊다(断つ)	끝다(伸ばす)
나가다(出る)	나누다(分ける)	나서다(出る)
나오다(出てくる)	내려가다(下る)	넘다(越える)
넣다(入れる)	노닥이다(喋る)	놀라다(驚く)
놓치다(逃す)	놓다(横たわる)	느끼다(感じる)
다녀오다(行ってくる)	다니다(出回る)	다듬다(練る)
다듬어오다(練てくる)	다투다(争う)	달그락거리다(ことことする)
달리다(走る)	당기다(引っ張る)	당하다(当面する)
당황하다(うろたえる)	대답하다(答える)	대하다(対する)
대화하다(対話する)	맹기다(火をつける)	더듬거리다(口ごもる)
도와가다(助ける)	도와주다(助ける)	돌다(回る)
돌려매다(回して結ぶ)	돌려보다(回し読みする)	돌리다(回す)
돌리시다(お回しになる)	돌아나오다(角から出る)	돌아보다(顧みる)
되풀이하다(繰り返す)	뒹굴다(寝転がる)	드나들다(出入りする)
듣다(聞く)	들다(祝杯をあげる)	들다(考えがする)
들어가다(入る)	들어주다(聞き入れる)	들여다보다(覗き込む)
들이마시다(吸い込む)	등한시하다(等閑視する)	따라가다(追っていく)
따지다(問う)	떠돌다(放浪する)	떠들어대다(騒ぎ立てる)
떠올리다(思い出す)	떨어지다(落ちる)	떨치다(とどろく)

뛰다(走る)	뛰어다니다(走り回る)	마련하다(支度する)
마무리하다(仕上げる)	마시다(飲む)	만나보다(会う)
말하다(話す)	말해가다(話していく)	망설이다(ためらう)
맞다(殴られる)	머무르다(泊まる)	머뭇거리다(もじもじする)
먹다(食べる)	멈칫하다(もじもじする)	멋쩍어하다(きこちない)
모르다(分からない)	모여들다(集まってくる)	모이다(集まる)
목욕하다(お風呂に入る)	몰라하다(知らんぷりする)	무마해가다(なだめすかす)
무찌르다(打ち破る)	물다(噛む)	물러서다(退く)
미끌어지다(しゃべる)	밀려들다(押し寄せる)	바뀌어가다(変わっていく)
바라보다(眺める)	박다(打ち込む)	반복하다(反復する)
반신반의하다(半信半疑する)	반영하다(反映する)	받다(もらう)
받아들이다(受け入れる)	발전하다(発展する)	발표하다(発表する)
밝히다(明かす)	방심하다(放心する)	번쩍하다(びかっとする)
변하다(変わる)	보다(見る)	부대끼다(さいなまれる)
부르다(歌う)	부리다(ぐずぐずする)	부서지다(砕ける)
불타오르다(燃え上がる)	붙여주다(つけてやる)	비교하다(比較する)
비틀다(よじる)	비틀대다(よじる)	빌려가다(借りる)
빠져나오다(抜け出す)	빼다(抜く)	뿌리다(蒔く)
뿜어가다(吹き出す)	사귀다(付き合う)	사생동고하다(死生同苦する)
살다(暮す)	살피다(見回す)	삼키다(飲み込む)
생각하다(考える)	생산하다(生産する)	서성거리다(うろつく)
소비하다(消費する)	순환하다(循環する)	술렁거리다(ざわめく)
쉬다(休む)	스멀거리다(むずむずする)	스치다(擦れる)
식사하다(食事する)	쌓다(積む)	쌓아나가다(積んでいく)
쓰다(書く)	씨름하다(真剣に取り組む)	씹어주다(噛んでやる)
아등바등하다(じたばたする)	아차하다(うっかり忘れる)	안절부절하다(落ち着かない)
앉다(座る)	앓아눕다(寝たきりになる)	애쓰다(一生懸命だ)
얘기하다(語る)	어리둥절하다(面食らう)	어물쩍하다(はつきりしない)
어영부영하다(ぶらぶらする)	어찌구저찌구하다(なんだかんだいう)	엇갈리다(行き違う)
연락하다(連絡する)	연습하다(練習する)	연창하다(連唱する)
오가다(行き交う)	오다(来る)	오락가락하다(行ったり来たりする)

올라가다(あがる)	옮겨가다(移っていく)	옮기다(移す)
왔다갔다하다(行ったり来たりする)	왕복하다(往復する)	우물쭈물하다(もじもじする)
움직이다(動く)	유유자적하다(悠々自適する)	음용하다(飲用する)
이동하다(移動する)	이르다(至る)	이송하다(移送する)
이야기하다(語る)	이어지다(繋がる)	이용하다(利用する)
일하다(働く)	읽다(読む)	입다(着る)
잊어버리다(忘れる)	자다(寝る)	자중지란하다(内輪揉めする)
잠자다(眠る)	잦아지다(頻繁になる)	재채기하다(くしゃくする)
전해지다(伝わる)	조사하다(調査する)	조작하다(操作する)
졸다(居眠りする)	주고받다(取り交わす)	주다(あげる)
주저하다(躊躇する)	주춤하다(たじろぐ)	준비하다(準備する)
즐기다(楽しむ)	지나가다(過ぎて行く)	지나다(過ぎる)
지내다(過ごす)	지내오다(過ごしてくる)	지다(花が散る)
지우다(縛り上げる)	지체하다(遅れる)	지켜보다(見守る)
지키다(守る)	질문하다(質問する)	집권하다(執権する)
짓다(ご飯を炊く)	차다(舌打する)	처리하다(処理する)
쳐다보다(眺める)	추키다(たくしあげる)	출동하다(出動する)
취하다(取る)	치다(後ずさりする)	치르다(払う)
치솟다(立ちのぼる)	타들어가다(燃える)	터지다(弾ける)
통과하다(通過する)	통역하다(通訳する)	통찰하다(洞察する)
팔다(売る)	퍼부어대다(浴びせる)	퍼붓다(浴びせる)
퍼지다(広がる)	펴럭이다(ひるがえる)	펴다(伸ばす)
풀다(解く)	피우다(さぼる)	피우다(吸う)
하다(する)	해나가다(やっていく)	허둥지둥하다(慌てる)
혈뜯다(中傷する)	호송하다(護送する)	회전하다(回転する)
회정하다(回程する)	훑치다(拭う)	휘청하다(ふらつく)
흐르다(流れる)	흔들다(揺らす)	흔들리다(揺らく)
흘러가다(流れていく)	흩어지다(散らばる)	

#### 4.3.2. 「하고 있는 사이(에)」形式

「사이(에)」節を構成する述語が、「하고 있다」形式で現れた197例のうち、異なり語数は118の例である。また、異なり語数の中には、結果継続を表すのが28例含まれていたが、本論文では、動作継続を対象としているため、結果継続の28例を除き、動作継続を表す90例について分析を行った。具体的に「하고 있다」形式で現れた動詞をあげると<図18>のようである。

<図18>

감지하다(感知する)	감탄하다(感歎する)	거듭하다(重ねる)
걸어가다(歩いていく)	계산하다(計算する)	계속하다(継続する)
관찰하다(観察する)	기다리다(待つ)	기울이다(耳をすませる)
갈다(敷く)	나누다(分ける)	내려가다(下る)
노려보다(睨む)	놀라다(驚く)	늦추다(遅らせる)
다투다(争う)	당황하다(慌てる)	대답하다(答える)
돌다(回る)	돌리다(回す)	듣다(聞く)
떠돌다(放浪する)	떨다(震わせる)	말하다(話す)
망설이다(ためらう)	머뭇거리다(もじもじする)	먹다(食べる)
멈칫하다(もじもじする)	모르다(分からない)	묻다(尋ねる)
몽그직거리다(ぐずぐずする)	밀쳐내다(弾き放つ)	바라보다(眺める)
바라보다(眺める)	받다(もらう)	밟다(踏む)
벌리다(開く)	벌이다(繰り広げる)	벼르다((機会を)狙う)
보내다(送る)	보다(見る)	보하다(保つ)
부복하다(俯伏する)	빨다(吸う)	빼다(消尽する)
살피다(見回す)	생각하다(考える)	생계망게하다(途轍もない)
셈하다(計算する)	수수방관하다(袖手傍観する)	시달리다(苦しめる)
싸우다(戦う)	쓰다(書く)	애쓰다(一生懸命だ)
어리둥절하다(面食らう)	어물어물하다(もじもじする)	어지럽히다(散らかす)
열다(開く)	오다(来る)	올라가다(上がる)
왔다갔다하다(行ったり来たりする)	우물쭈물하다(もじもじする)	웃다(笑う)

이야기하다(語る)	일으키다(引き起こす)	읽다(読む)
자르다(切る)	주저주저하다(ためらう)	주저하다(躊躇する)
주춤거리다(たじろぐ)	죽어가다(死んでいく)	줄다리기하다(綱引きする)
중얼거리다(つぶやく)	즐기다(楽しむ)	짓누르다(押しえつける)
짜다(練る)	쫓다(追う)	주뵈거리다(もじもじする)
찾다(探す)	치다(もがく)	치르다(戦争をする)
타다(燃える)	통겨보다(弾んでみる)	팔다(売る)
피우다(さぼる)	하다(する)	해주다(してやる)
헤매다(さまよう)	호의호식하다(好衣好食する)	흘리다(脂汗をかく)

そして、「하는 사이(에)」形式に現れる動詞と「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に現れる動詞の分布について調査するとき、両形式に同時に現れる動詞(< 図19 > でまとめた41個)は除くことにする。

< 図19 >

거듭하다(重ねる)	걸어가다(歩いていく)	계속하다(継続ける)
관찰하다(観察する)	기다리다(待つ)	나누다(分ける)
내려가다(下る)	놀라다(驚く)	다투다(争う)
당황하다(慌てる)	대답하다(答える)	돌다(回る)
돌리다(回す)	듣다(聞く)	떠돌다(放浪する)
말하다(話す)	망설이다(ためらう)	머뭇거리다(もじもじする)
먹다(食べる)	멈칫하다(もじもじする)	모르다(分からない)
바라보다(眺める)	받다(もらう)	보다(見る)
살피다(見回す)	생각하다(考える)	쓰다(書く)
애쓰다(一生懸命だ)	어리둥절하다(面食らう)	오다(来る)
올라가다(あがる)	왔다갔다하다(行ったり来たりする)	우물쭈물하다(もじもじする)
이야기하다(語る)	읽다(読む)	주저하다(躊躇する)
치다(も가く)	치르다(払う)	팔다(売る)

피우다(さぼる)

하다(する)

#### 4.3.3. 「하는 사이(에)」と「하고 있는 사이(에)」の違い

まず、「하는 사이(에)」と「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に現れる動詞のうち、具体的な動きを表す動詞を調べており、その結果は<図20>にまとめているようである。

<図20>

具体的な動きを表す動詞	
「하는 사이(에)」	「하고 있는 사이(에)」
가다, 감추다, 건너다, 건너오다, 걷다, 걸어오다, 눕다, 다녀오다, 다니다, 달리다, 돌아나오다, 뒹굴다, 드나들다, 들다, 들어가다, 따라가다, 뛰다, 뛰어다니다, 비틀다, 빠져나오다, 빠다, 뿌리다, 쌓다, 앓다, 옮기다, 이동하다, 이송하다, 입다, 지우다, 호송하다, 회전하다, 훔치다	갈다, 자르다

<図20>から、動きを表す動詞は、殆んど「하는 사이(에)」形式に現れることが分かる。面白いことに、この現象は、中世末期日本語における「うち(に)」節にも見られる<sup>43)</sup>。

43) 福嶋(2001)によると、中世末期日本語の「うち(に)」節に現れる述語を調査してみたら、現代日本語とは反対に、「シテイル」形式の例が極めて少なく、「スル」形式の例が多いと報告している。また、「シテイル」形式の例文をみると、現代日本語の「シテイル」形式とは異なり、具体的な動きのある動作継続を表している例文がない。具体的な動きのある動作継続を表している例文はすべて「スル」形式で現れる。この現象から、当時の「シテイル」形式が表しにくかった部分を動詞基本形が担っていたと言えるだろう。そして、両形式の分布の偏りから、中世末期日本語は、状態化形式としての「シテイル」の文法化の度合いを反映していることが推測出来る。つまり、現代日本語における「シテイル」形式には、存在動詞「イル」の意味が薄れているのに対して、当時の

「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に、動きを表す動詞が殆んど現れないのであれば、どういう動詞が用いられているのであろうか。〈図21〉で、「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に現れる動詞90のうち、両形式に同時に現れる41の動詞を除いた49の動詞をまとめている。

〈図21〉

감지하다(感知する)	감탄하다(感歎する)	계산하다(計算する)
관찰하다(観察する)	기울이다(耳をすませる)	갈다(敷く)
노려보다(睨む)	늦추다(遅らせる)	떨다(震わせる)
묻다(尋ねる)	뭉그적거리다(ぐずぐずする)	밀쳐내다(弾き放つ)
바라다보다(眺める)	밟다(踏む)	벌리다(開く)
벌이다(繰り広げる)	벼르다(機会を狙う)	보내다(送る)
보하다(保つ)	부복하다(俯伏する)	빨다(吸う)
빼다(消尽する)	생계망개하다(途轍もない)	셈하다(計算する)
수수방관하다(袖手傍観する)	시달리다(苦しめる)	싸우다(戦う)
어물어물하다(もじもじする)	어지럽히다(散らかす)	열다(開く)
웃다(笑う)	자르다(切る)	주저주저하다(ためらう)
주춤거리다(たじろぐ)	죽어가다(死んでいく)	줄다리기하다(綱引きする)
중얼거리다(つぶやく)	즐기다(楽しむ)	짓누르다(押さえつける)
짜다(練る)	쫓다(追う)	주뻗거리다(もじもじする)
찾다(探す)	타다(燃える)	통겨보다(弾んでみる)
해주다(してやる)	헤매다(さまよう)	호의호식하다(好衣好食する)
흘리다(脂汗をかく)		

「シテイル」形式には、存在動詞「イル」の意味が強く残っているため、アスペクト形式としては、まだ不十分な段階であったと言える。

現代韓国語のアスペクト形式を構成する存在動詞の「있다」のもつ固有の意味・機能は、現代日本語に比べて比較的強く影響しているとされている。このことから、現代韓国語における「사이(에)」節と、中世末期日本語の「うち(に)」節に共通して見られる現象を説明するには、存在動詞「イル(있다)」の文法化の度合いが重要な概念であ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現象は、非常に興味深いことであるが、このことに関するもっと詳しい研究は次の課題にしたい。

< 図21 >에挙げている動詞は、「走る」「歩く」のような動きを伴う動作とは異なっており、動態的な動作に対する静態的な動作(静止動作)を表す動詞であると言える。次の例文を見られたい。

(109) 손익을 머리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작자들  
이 벌써 손을 잡고…… (KAIST-2076)

(損益を頭の中で計算しているうちにこのやつらがすでに手を組  
んで……)

(110) 내가 마르크스주의의 교설에 몰두하고 유대 민족의 활  
동을 냉정하게 명확히 관찰하고 있는 사이에 운명 자  
체가 그 대답을 해주었다. (나의)

(私がマルクス主義の教説に没頭し、ユダヤ民族の活動を冷静  
かつ明確に観察しているうちに運命その自体が答えをしてくれ  
た。)

(111) 숨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수녀를 노려보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작고 야윈 손이…… (KAIST-2209)

(息苦しい恐怖を感じながら、修道女を睨み付けているうちに彼  
女の小さくて細い手が……)

(112) “그만하면 한에 차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사이  
에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있었다. (객주)

(「これで気がすみ了吗か。」そう尋ねているうちに吏房の顔  
が真っ青になっていた。)

(113)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미란과 내가 우두커니  
앉아 비 내리는 해안 쪽을 바라다보고 있는 사이에 전  
복죽과 옥돔구이는 다 식어갔다. (기차)

(食卓を間において向かい合ったミランと私が、ぼんやりと海岸の方を眺めているうちにアワビスープと赤甘鯛焼きは冷めていった。)

- (114) 다른 아이들이 수연통을 빨고 있는 사이에 나는 술에 취했다. (KAIST-1879)

(他の子供たちが水煙筒を吸っているうちに私は酒によった。)

- (115) 직원들이 웃고 있는 사이에 헤련은 사무실을 나왔다. 화장실로 간 그녀는 천천히 손을 씻었다. (모든)

(同僚たちが笑っているうちにヘリョンは事務室を出た。トイレに行った彼女はゆっくりと手を洗った。)

- (116) 그들이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에 시위행렬은 경찰서 앞에 다다라 있었다. (태백)

(彼らが意見の衝突を起こしているうちに示威行列は警察署の前に至っていた。)

- (117) 눈앞이 아찔해서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서원이 가까이 다가왔다. (여명)

(くらっと目眩がしてたじろいでいるうちにソウォンが近寄ってきた。)

- (118) 사람들이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사이에 석화는 재빨리 당나귀에게 다가가…… (KAIST-1399)

(他の人たちがそうつぶやいているうちにソクカは素早くろばに近づいて……)

- (119) 공동교섭단이 대안을 짜고 있는 사이에 그레이드는 방송권료를 단번에…… (KAIST-795)

(共同交渉団体が代案を練っているうちにグレイドは放送権料を

いっきよに……)

- (120) 하림이 아기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군복의 사나이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여명)  
(ハリンが赤ん坊をあやすのに脂汗をかいているうちに軍服姿の  
男たちが近寄ってきた。)

(109)から(120)までの例文に用いられているのは、계산하다(計算する)、관찰하다(観察する)、노려보다(睨む)、묻다(尋ねる)、바라다보다(眺める)、빨다(吸う)、웃다(笑う)、일으키다(起こす)、주춤거리다(たじろぐ)、중얼거리다(つぶやく)、짜다(代案を練る)、흘리다(脂汗をかく)などの動詞である。これらの動詞を見ると具体的な動きを伴わない動詞(動きのない静止動作を表す動詞、あるいは動きの様態を表す動詞)であることが分かる。

現代韓国語においては、「한다」形式と「하고 있다」形式がともに「継続性」を表していて、この両形式の表す意味には何ら違いはないと言われている。しかし、「하는 사이(에)」形式と「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の環境下では、この両形式の表す意味には相違点があると言えよう。

結論的には、< 図20 >のように、具体的な動きを表す動詞は「하는 사이(에)」形式によく現れる。また、< 図21 >のように「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には、主に動きを伴わない動作(静止動作)を表す動詞が用いられることが分かる。このことから、典型的な「継続性」を表す形式は、「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より「하는 사이(에)」形式であると言える。

## Ⅲ. 結論

現代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アスペクト形式の表す意味・用法に関しては、多くの先学によりその類似性が認めら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両言語の間にはいくつかの相違点が存在することも事実である。

本論文は、蓄積された先行研究の成果をふまえた上で、今まで指摘されていなかった以下のようなことについて指摘することから出発している。

第一は、「Perfect(経験・記録)」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に関して十分な研究がなされていない点である。一部の先行研究では、本論文の主張する内容と同様に「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Perfect(経験・記録)」を表すと認めている立場もある。しかし、本論文では「Perfect(経験・記録)」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をめぐって、特に「했다」形式に置き換えることが可能かどうかというテストを行い、以下のように主張した。

「Perfect(経験・記録)」を表す「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の中には、「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のみが成立し、「했다」形式に置き換えられない例文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置き換えテストのもつ意味は、「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が「Perfect(経験・記録)」を表す形式であることを支える揺るぎない証拠であることにある。もちろん、本論文で調べた「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で現れた例文には、構文的な制約があり、また、限られた語彙によって現れる用法であるかも知れない。現段階では断定的なことは言えないが、現に「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で現れる例文が存在するのも事実であるので、この「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を位置づけ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以上のような事実に基づいて、本論文では「했다」形式のみならず「하고 있다(해 있다)」形式も「Perfect(経験・記録)」を表す形式であると結論づけている。このテーマは今の私の力量を越えるものであるとも思われるが、足りない部分に関しては、今後なお追求して行きたいと思う。

第二は、アスペクトに関する現代韓国語の先行研究では一般的に「한다」

形式と「하고 있다」形式がともに「継続性」を表せると指摘されてきた。しかし、両形式のもつ意味の違いについてはあまり注目されていなかったと思われる。

本論文では、以上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現代日本語の時間関係を表す従属節の一つである「うち(に)」節と、これに対応する現代韓国語の「사이(에)」節との対照を通して「한다」形式と「하고 있다」形式のもつ意味の違いについて究明しようとした。

この「うち(に)」節と「사이(에)」節はともに、共起関係・期間限定を表すがゆえに、「動作継続」(「結果継続」を表す例文もあるが、本論文では触れないことにした)を表しやすい。しかし、「うち(に)」節と「사이(에)」節は、ある程度似ているものの両形式の間には相違点も確かに存在する。

この相違点を明確にするために、「うち(に)」節と「사이(에)」節に対して分析を行った結果、日本語の場合は、「シテイル+うち(に)」形式が「スル+うち(に)」形式より相対的に多いのに対して、韓国語の場合は、「하는+사이(에)」形式が「하고 있는+사이(에)」形式より多く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日本語	韓国語
「シテイル(하고 있다)」	93%	17%
「スル(한다)」	7%	83%

また、「하는 사이(에)」形式と「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とを対照してみた結果、「하는 사이(에)」形式には動きを表す動詞がよく用いられる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には、動きを伴わない動作(静止動作)を表す動詞が多く用いられている。このことから、「하는 사이(에)」形式が「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より典型的な「継続性」を表す

形式であると考えられる。

現代韓国語においては、「한다」形式と「하고 있다」形式がともに「継続性」を表すもので、この両形式の表す意味には何ら違いはないと言われているが、「하는 사이(에)」形式と「하고 있는 사이(에)」形式では、この両形式の表す意味には、以上のような相違点があることが確認できた。

## 【参考文献】

<日本語文献>

- 伊藤英人(1989)「現代朝鮮語動詞の非過去テンス形式の用法について」  
『朝鮮学報』第131輯
- 井上優(2001)「現代日本語の「タ」—主文末の「…タ」の意味について—」  
『「た」の言語学』ひつじ書房
- 奥田靖雄(1978)「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上)」『国語教育』53号  
------(1978)「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下)」『国語教育』54号
- 生越直樹(1993)「朝鮮語における過去の出来事を表す表現」『日本語とアジア諸言語との対照研究—テンス・アスペクト—』  
------(1995)「朝鮮語했다形、해 있다形(하고 있다形)と日本語シタ形、シテイル形」『国立国語研究所報告110、研究報告書16』
- 管野裕臣(1986)「朝鮮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学習院大学言語共同研究所紀要』9
- 金田一春彦編(1976)『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 工藤真由美(1991)「過去の出来事の表現—テンス・アスペクト体系とその機能—」  
『横浜国大言語研究』9  
------(1982)「シテイル形式の意味記述」『武蔵大学人文学会雑誌』13-4、武蔵大学人文学会  
------(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日本語の時間の表現—』ひつじ書房
- 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くろしお出版
- 浜之上幸(1991)「現代朝鮮語動詞のアスペクト的クラス」『朝鮮学報』第138輯  
------(1992)「現代朝鮮語の「結果相」=状態パーフェクト—動作パーフェクトとの対比を中心に—」『朝鮮学報』第142輯
- 福嶋健伸(2001)「中世末期日本語のウチ(ニ)節における～テイルと動詞基本

形」『筑波日本語研究』第六号

益岡隆志(1987)『命題の文法—日本語文法序説—』くろしお出版

森山卓郎(1988)『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金水敏・工藤真由美・沼田喜子(2000)『時・否定と取り立て』岩波書店

安平鎬(2001)『日韓両言語のアスペクトに関する対照研究—アスペクト形式  
の文法化を中心に—』2001年度筑波大学博士(言語学)学位請  
求論文

<韓国語文献>

金聲和(1992)『국어의 상 연구』한신문화사

金次均(1980a)「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한글』169

南基心(1972)「現代国語의 時制에 関한 問題」『국어 국문학』  
55-57

徐正洙(1986)「국어 시상형태의 의미 분석 연구— $\emptyset$ ,고,있,였,있었  
—」『문법연구』3

孫세모들(1996)『국어 보조용언 연구』한국문화사

梁慶模(1993)「일본어와 한국어의 相에 대한 대조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李南淳(1981)「現代国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研究」『国語研究』46

----- (1990)「相」『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동아출판사

催東柱(1995)「国語 時相体系의 通時的 變化에 関한 研究」서울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韓東完(1996)『国語의 時制 研究』国語学叢書 24. 国語学会

<英語文献>

Comrie, Bernard.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山田

小枝(1988)訳『アスペクト』むぎ書房)

# ABSTRACT

## On the Meaning of Aspect in Modern Japanese and Korean

Hye Kyong Jeon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t may be said that the meaning and utilization of aspect in modern Japanese and Korean are almost similar. However there exist partial differences among both languages in the meaning where aspect is used. These differences were recognized sufficiently by previous researchers.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dicate and to prove following facts by analysis with the basis of real examples after detailed survey of previous study.

Firstly, previous study indicates that 「*haessda*했다」(equivalent to ‘*sita*シタ’ in modern Japanese)」 is used in modern Korean to express 「Perfect(experience·record)」, which is one of the derived

meanings of 「*siteiru*シテイル(equivalent to ‘*hago-issda*하고 있다’ in modern Korean)」 in modern Japanese. However present study points out that there are some examples to use the form of 「*hago-issda* (*hae-issda*)하고 있다(해 있다)」 to represent 「Perfect(experience·record)」. It is tried to replace the form of 「*hago-issda*(*hae-issda*)하고 있다(해 있다)」 by the form of 「*haessda*했다」 to assert the fact. The result shows that 「*hago-issda*(*hae-issda*)하고 있다(해 있다)」 is not replaced by 「*haessda*했다」 and 「*hago-issda* (*hae-issda*)하고 있다(해 있다)」 should be kept in some sentences. These facts indicate that both forms of 「*haessda*했다」 and 「*hago-issda*(*hae-issda*)하고 있다(해 있다)」 express 「Perfect (experience·record)」 in modern Korean.

Secondly, a contrast of subordinate clauses, 「*utsini*うち(に)」 and 「*saie*사이(에)」, was performed. The former is a subordinate clause that represents time relation in modern Japanese and the latter corresponds to the former in modern Korean. The result shows that 「*siteiru+utsini*シテイル+うち(に)」 is used dominantly than 「*suru+utsini*スル+うち(に)」 in Japanese. On the contrast, 「*haneun+saie*하는+사이(에)」 is appeared much more than 「*hago-issneun+saie*하고 있는+사이(에)」 in Korean. And also, since both clauses represent simultaneous occurrence/period limit, it is apt to mean action continua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form of 「*haneun+saie*하는+사이(에)」 is used with the verbs of action and motions and that the form of 「*hago-issneun+saie*하고 있는+사이(에)」 appears in the verbs which

represent static state and shape without motion. These facts state that 「*haneun+saie*하는+사이(에)」 represents typical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than 「*hago-issneun+saie*하고 있는+사이(에)」 does.